

거리동이긴 매화가  
향기 짙은 꽃을 피우는  
이른 봄날  
겨울 건넌 농부는  
얼음 풀린 밤을 갈면서  
죽은 함께 건넌 생명들  
마주 보고 웃는다  
봄 생명들 다 농부는  
그렇게  
기쁘스니  
'매화철'  
전수 2017



© 이철수 www.mokpan.com

**AU**  
1973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반란을 벌였습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 제1호 소식지 2017 겨울호  
AJOU UNIVERSITY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7 120102 Vol. 22  
**AJOUINSIGHT.**

<아주인사이트> 2017 (4350) 겨울호. 전 아주대학교사람들과 함께 품권22호.



봄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17 (4350) 겨울호 품권22호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7 120102 Vol. 22



눈은 시는 날  
눈은 시는 날

눈은 시자  
새소리 들린다  
꽃알아 들을 말  
호오마디도  
없다

© 이철수 www.mokpan.com



Special  
겨울은 거울이다

겨울은 반대가 가는 뒷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겨울은 세태가 오는 세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아주인사이트> 2017 겨울 특집



special 겨울은 겨울이다

겨울은 언제가 가는 모모함을 비추는 겨울이다  
겨울은 언제가 오는 세화만큼 비추는 겨울이다  
-아주인사이드> 2017 겨울호 특집

04

특집 인터뷰

이철수  
목판화가  
최재천  
前 국립생태원 원장  
이화여대 석좌교수  
박옥걸  
사학과 명예교수

16

특집 기고

김홍표  
약학과 교수  
황대권  
생명평화마을 대표  
김은하  
심리학과 교수

20

특집 에세이

박보람  
수학과 교수  
고재성  
기계공학과 교수  
조재현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과장  
정혜진  
문화콘텐츠학과 4  
우정웅  
미디어학과 4

22

특집 에세이

김혜숙  
심리학과 교수  
신동우  
건축학과 교수

28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최기주  
교통신시스템공학과 교수

30

전공소개

김영태  
물리학과 교수

32

Location Premium

강소기업으로 가자  
<유종>

33

내정신의 고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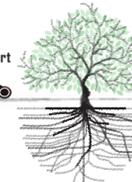
양승철 동문  
변호사

34

News

뉴스  
기부

Column & Report



- 어디 가시려하구?  
- 저기집에요  
- 다녀온 거지?  
- ...

'집으로 가는 외출'  
철수 2013



© 이철수 www.mokpan.com

a word of editors

오랫동안 그리웠던 섬이었죠. 오랫동안 지내고 싶었던 섬이었습니다. 흙도 별도 따뜻하므로 여유 잡아 오시오. 정말 입동 보낸 부용동 연잎은 여전히 푸르던데요. 살 예는 바람 없으니 살 성 죽이는 별 독하더라는 말씀<sup>92</sup>이 불처럼 끌어 덮고는 꿈꾸던 섬의 바닷가 하루 밤에 그쳤습니다. ● 총칼에 끌릴로 맞서던 '종주막'들을 불현듯 걷은 청년화가가는 박달재 농부가 되었던듯. 예술가의 조각칼을 받는 목판과 농부의 호미를 먹는 흙 중 어느 쪽이 더 그의 힘을 식혔을지는 하염없습니다. 다만 오래지 않아 우리는 겨울의 소리<sup>93</sup>조차 그림으로 보게 되더니, 그가 비워놓은 곳의 초월을 구경하게도 되었습니다. 부끄러이 만드는 여기에도 /

\ '흔쾌한 '마을' 내주어 또 배웁니다. ● 모교였습니다. 그때의 별들처럼 총총히 걸어들라 곁에도 세월을 스며놓은 '어린 왕자'를 만났습니다. 동물처럼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sup>94</sup>라는 당신의 인도에 이미 오래 전 환속되었었지요. 그만큼 섬리에 허무해진 슬픔도 있었는데, 그 미소에 위로되어 좋았습니다. 참! 이성적 낭만 지니며 살게 해주어 고마운 인사 여기 남겨요. ● 열려서 녹이고, 덮고는 틱우는 겨울입니다. 바람 풀어지면 낯선 길로 떠밀려 가더라도... 겨울 꺼내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겨울은. / 南 ●



# 소리만으로 풍경 이루는 겨울도

- 산다는 것은 '혼자 견딜 수 있는가'이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목판화가 이철수

<아주인사이트> 이번 호에 '겨울'을 담은 이철수의 작품(© 이철수 www.mokpan.com)이 함께 합니다.

목판화가 이철수는 '파 먹고 사는 일'을 한다. 대문을 열면 바로 너른 들판을 마주하게 되는 제천의 시골 집에서 그는 판화를 새기고 흙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다. 삶과 사람, 자연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성찰이 담긴 그의 작품은 고단한 이들에게 목직한 위로로 다가온다. 때로 비정한 세상에 던지는 따끔한 쓴소리에서는 1980년대 시위판을 누비던 '민중 화가'의 여전히 뜨거운 가슴도 느낄 수 있다. 풍경 소리가 은은한 이철수 작가의 집, 그의 작업실에서 요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리\_이슬 / 브랜드전략실

❶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다.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는?

이 계절에는 논과 밭을 다닐 때 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눈에 사는 물뱀, 마당에 사는 구렁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된서리 내리고 나면 뱀은 겨울잠 자러 가고 없다. 요즘 마당에 있는 소나무 가지치기를 시작했다. 큰 밭의 일은 마무리 됐고 작은 밭에 집에서 만든 퇴비를 뿌리고 갈아놓는 일이 조금 남았다. 내년 봄을 준비하기 위해 퇴비를 미리 뿌려놔야 한다. 덜 삭은 퇴비가 땅 속에서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서다. 침잠도 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양분들을 흙 속에 만들어 두어야 겨울 농한기가 시작된다. 시골살이가 겨울에는 겨울대로 참 좋다. 막막한 가운데 새소리와 바람소리, 고양이 걸어가서 소리가 소리로 풍경을 이룬다. 달빛이 없는 밤이면 정말 철쭉 같은데, 감각이 한껏 예민해졌다가 잠드는 밤도 즐길 만 하다.

봄을 위한  
겨울의 침잠도  
'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  
:  
겨울에도  
땅갈고 퇴비해야  
봄을 위한 숙성 있어

❷ 침잠을 위한 자양분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주신다면 ...

젊은이들과 교류가 많지 않아서 젊은이들에게 뭐라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 젊은이, 젊다는 공통점 하나로 그들 개개인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다.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우리 세대도, 대체로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끼리끼리 어울려 사니 살 만한 사람들끼리 만나 지내고 있을 뿐,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는 것처럼 젊은이도 처해있는 조건에 따라 고민의 질도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으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기 쉽다. 내 경험이나 남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미묘하게 다른 조건 하에 놓여있고 개개인의 갈등과 분노는 너무도 엄정하게 그 사람만의 것이다. 모든 개별 존재는 존귀하고 누구에게든 가르침은 적당하지 않다. 차라리 고백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아는 게 도움이 된다. 특정 대목, 어떤 이야기가 와 닿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 괜 찮을걸?' 식은 좀 무모하다.

❸ 그럼 고백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유소년시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20대 초반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다. 부친에 대한 일방적 미움이 컸다. 그런데 군 복무 중이던 어느 날 4·19, 5·16을 다룬 강만길 선생의 글을 읽다가 일종의 종교적 체험을 했다. '아, 내 아버지는 죄가 없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머리 속에 하얀 빛, 광채가 가득 차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아버지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에 치인 개인이었던 거다. 운이 나빴던 것일 뿐,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라는 깨달음이 왔고, 그 이후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갈등이 다 사라졌다. 인식이 전환되면서 내가 처해 있던 현실이 통째

로 이해가 된 거다.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자칫 미워하고 비판하고 자포자기하기도 십상인 2017년 겨울의 조건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에게 권해야 한다면 그런 방식을 권하고 싶다. 도망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망 가지만, 그게 아니라면 죽기 살기로 현실을 붙잡고 씨름해 보라는 거다. 몇 해 전에 '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내라'는 화제가 담긴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자꾸 다른 이들에게 물으려 하지 말고, 자기 문제라는 걸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판화를 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나를 찾아오기도 한다. 와서 별의 별 질문을 다 한다. 그럴 때, "판화 200개만 해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돌려보낸다. 이후에 대개는 안 찾아온다. 200개 아니라, 20개만 스스로 해봐도 안다. 현실과 부딪히면서 질감이 달라지는 거다. '실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충분히 감당해보고, 정색하고 맞닥뜨리겠다고 생각하라. 뜨겁게, 무섭게 깨어나봐라. 막막한 청년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회라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 이 현실을 건너가야 하는데, 끝내 살아서 건너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❹ 결국은 스스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 서늘하고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좋은 멘토가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다. 행운이었다. 사람들이 그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고 많이 묻는데, 많은 경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냥 서로 아는 거다. 교류의 세월이 오를수록 그랬다. 지나치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야

증오와 갈등의 '아버지'도  
역사 속 삶의 수레바퀴에 치인  
개인임을 깨닫고 이해  
:  
도망쳐서 되면 도망을  
아니면 현실 붙잡고 싸움

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 오히려 영향을 주고 받는다. 원래 관계란 그런 것이다.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해도 좋겠다. 서툰 관계 즉 업무나 계약 관계, 무언가 질서 있는 단어들만 필요한 관계와는 달리 인격적인 좋은 관계에는 격식 있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다. "애, 나 왔다"면 된다. "좋은 분들끼리 자주 보세요?"라고도 묻는다. 만나는 횟수가 중요한가? 만남도, 준비가 있으면 저절로 만나게 된다. 인연(因緣), 두 글자로 설명되는 자연스러운 관계면 충분하다. 관심이 가는 누군가와 눈에 보이게 실선으로 연결하고 싶어할 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나? 스스로의 삶을 잘 가꾸고 살면 나머지는 저절로 오고 간다. 화려한 인연이 너무 많지도 무겁고 짐이 된다. 욕심이다. 산다는 것은 결국 '혼자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다.

❺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자치고 힘든 청년들이 많은데 ...

그 마음들이 짐작이 된다. 대중 아프고 대중 힘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내 존재가 처져 곤란인 상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상태, 정말 버릴 수 있다면 스스로를 버리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이럴 때는 카운슬링도 소용이 없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의 못남과 무기력함을 절감할 때, 자빠지는 사람들을 세상은 실패했다고 하고 낙오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빠지고 눕는 것도 다 삶의 방법이다. 바람 부는 날, 마당에 의자들을 보면 어떤 것은 서 있고 어떤 것은 넘어지고 자빠져 있다. 그것도 선택이고, 길일 수 있다. 무기력하게 자빠졌다고 쉽게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모두가 살자고 선택한 방법일 수 있는 거다.

❻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을 포용하기에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요즘 적어온 메모 중 하나가 "돈과 나 밖에 모르는 나와 너, '함께가 가능하겠는가?' 다. 나 남 없이 돈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게 현대인이다. 돈이 신앙이 된 세상이다. 요즘 들려오는 세

Ajou Quarterly Magazine | 2017 Winter | Vol.22

상 이야기에 가슴 아플 때가 정말 많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모두 도둑놈이 될 거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사람의 타고난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이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데 같이 경쟁을 하게 한다. 최선을 다해서 일정 성과를 낸 이들에게만 사람들의 눈길이 간다. 나머지는 뒷전, 버려지는 거다.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하는 경쟁에도 문제가 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고 소질이 다 다르다. 그러면 시험문제도 난이도를 다양하게 해서,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골라서 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각자의 소쿠리에 감당 가능한 것들을 담게 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어차피 사회에 나와서는 스스로의 소질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왜 무자비한 줄 세우기와 등급 매기기로 무한경쟁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고민이 전혀 없는 거다. 이



● 이철수 화가의 재전 자택은 고즈넉이라는 단어의 맛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었다. 낮은 기와 담장과 소나무들, 석탑, 작은 연못, 장독대 등 구석구석 주인의 차분한 손길과 마음이 배어 있었다.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다 그대로 <아주인사이트> 카메라에 미소를 지어준 이철수 화가(아래 사진), 마음과 생활이 얼굴과 몸에 드러나는가... 주름은 안 보이고 몸은 단단해 보였다. 취재를 마치고 함께 기념 사진을 찍는데 절로 팔뚝이 끼어진다(위 사진 / 왼쪽 남경호 초빙교수, 오른쪽은 이철수 에디터).

하고 싶은 것  
스무번 해보면  
'실감의 질감' 달라져  
:  
스스로에 의한 준비하면  
'좋은 인연' 저절로 와

사람 능력 천차만별인데  
무자비한 줄세우기, 등급매기기  
사람들 행복에 고민 없는 것  
:  
사회는 '함께'를 경험케 하고  
개인은 '절박한 침잠' 해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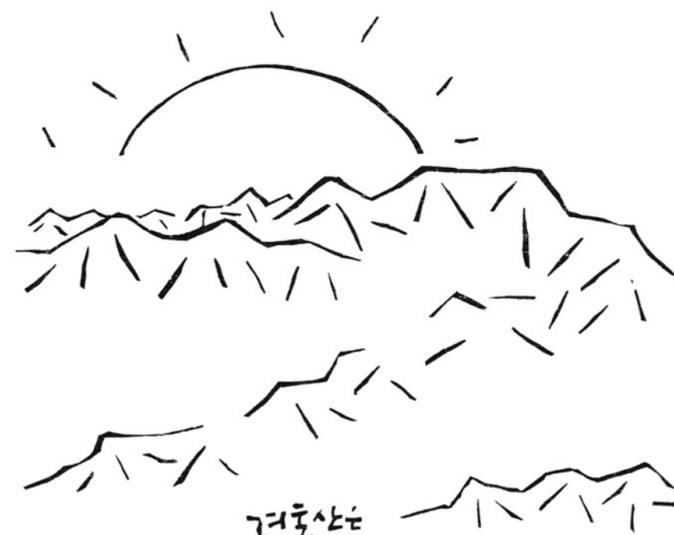
런 구도에서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또래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시루 속에서 콩나물들이 함께 쑥쑥 자라듯이, 또래들이 우애 있게 함께 크는 것. 이진 전혀 불안해 할 일이 아니다. 서로 밥그릇을 빼앗아 먹는 게 아니라 솔탄지를 함께 키우는 일 에 가깝다. 함께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느끼지 못하면, 서로가 자기 답안지 감추는 아 이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런 방식을 내면화 하게 사회가 조정해서는 안 되는 거다. 냉혹해진 우리 사회가 '함께' 설 자리를 내어주려 하지 않는다. 각박해진 현실이 누구 탓인가? '우리 탓' 이라고 해야겠지. '내 탓'이라고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 한 해의 달력이 넘어간다. 나이들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려서부터 어서 나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차피 죽느라고 사는 것, 늘 준비하고 산다. 아무때나 가도 괜찮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죽을 준비 잘 하라"고 한다. 여기 와서 살며

\\ 좋은 본을 많이 봤다. 어떤 동네 어르신이 99세에 돌아가셨는데, 늘 날씬하고 건강하게 사 시며 약초도 캐러 다니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셨다. 마을 공동묘지에 못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 으시고, 햇빛 좋은 날에는 거기 들어가서 쉬었다 가기도 하셨다. 또 다른 어르신은 할아버지 제삿날 온 식구를 다 만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이곳 어른들은 삶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 이 아니다. 농사를 지으며 사계를 경험하고, 순환에 대한 생각들이 워낙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셔서 그런가 싶다. 삶에 대한 달관으로 나이 먹으면 가야 한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자리가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젊은 날이 한 살씩 먹는 나이에 더 예민할 때 아닌가? 동세대들과 늘 비교하고 살게 되는 때 이기도 하고, 침잠을 생각하기에도 죽음을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우리 현실 이 일찍부터 차별을 실감하게 하는 터라, 침잠은 더 깊고 절박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삶의 고민을 대충하고 넘기지 말자는 이야기다. 현실에 안이하게 대응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기서, 길을 내라고 하고 싶다. ●



● 이철수는? 1980년대 민중화가로 활동했다. 전국 각지의 시위 현장에 그의 판화가 내걸렸다. 그림 세계의 전환은 1980년대 말 찾아왔다. 텃밭을 일구고 시골길을 걸으며 마음과 존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고 넓어졌다. '온 존재를 바꾸는 앞'을 위한 사색과 성찰, 그리고 실천을 담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교 연작판화 <네가 그 붉꽃 소식 해라>와 <이철수의 웃는 마을>,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 <이철수의 작은 선물>, <사는 동안 꽃처럼> 등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기러기산은  
주머니를  
드러내면  
엄숙하게

이철수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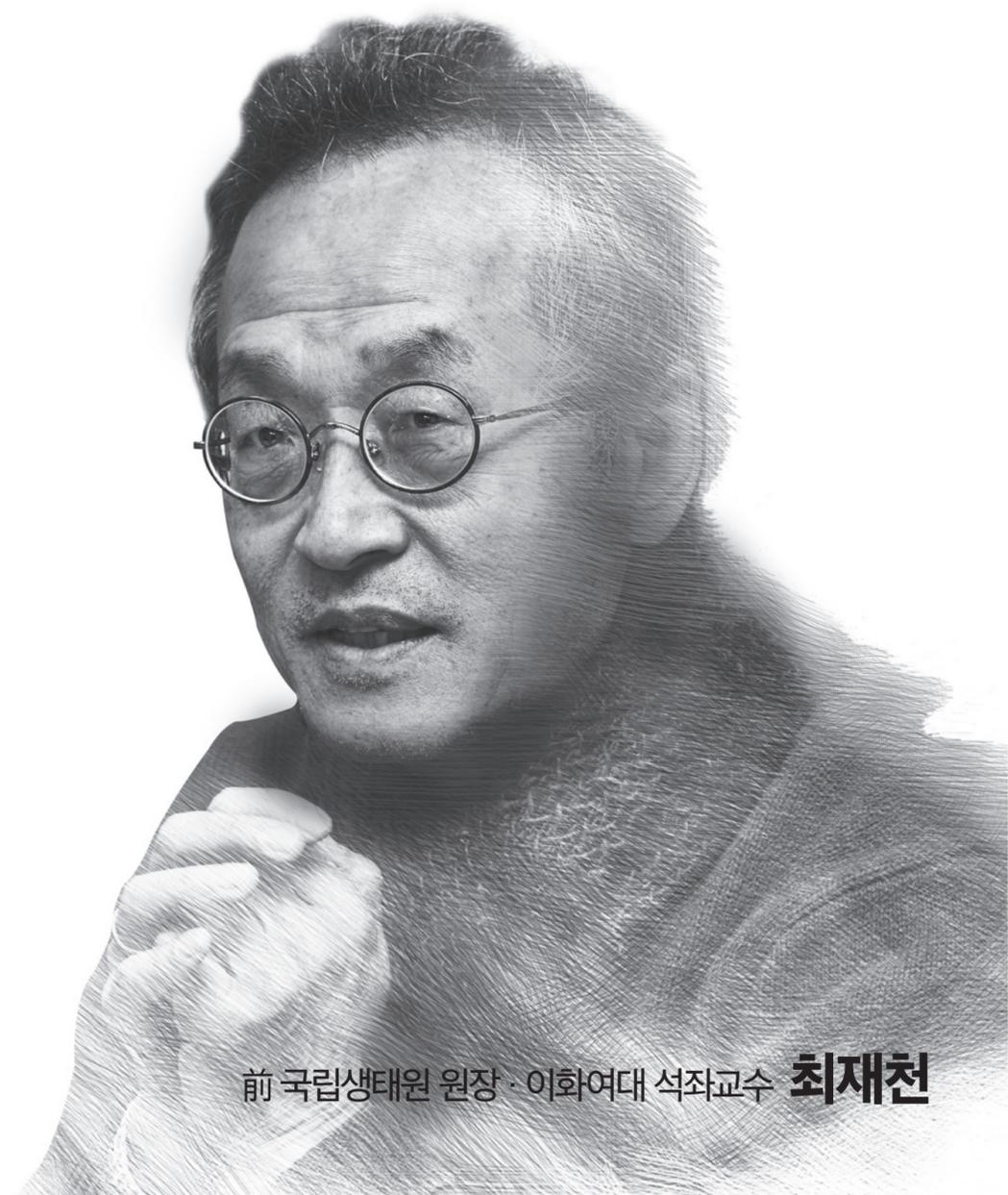
© 이철수 www.mokpan.com



# ‘나름 막가파’, ‘셀프 짜질이’의 겨울 어느날...

- 누구나 자신만의 겨울, 어마어마한 행운 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前 국립생태원 원장 ·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재천**

사회생물학자 최재천은 ‘위원장 동지’로 불린다. 그의 명함에 적힌 공식 직함만 교수를 포함해 총 5개. 여러 부처와 기관 산하 위원회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어느새 ‘위원장’이라는 완장까지 달게 되는 일이 다반사다. 최재천은 그만큼 활발하게 우리 사회 여러 이슈에 의견을 개진해 온 과학자로 그의 관심은 생태와 환경뿐 아니라 호주제 폐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전방위적이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강연과 저술 등 여러 활동에 나서면서 연구에도 깊이 몰두해온 그에게도, 세상 모든 게 다 싫던 방향의 계절이 있었다. 아직도 때로는 ‘지금 이 현실이 꿈이 아닐까?’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된다는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리\_ 이슬 / 브랜드전략실

### ❶ 생태학적 의미에서 겨울은 어떤 계절인가?

새 삶을 준비하는 시간. 발 밑에서 뭔가 활발히 활동하는 기간이다. 겨울에도 활발히 움직이는 생물이 많다. 지금은 거의 어렵지만 나도 미국에서 지낼 때에는 겨울 숲을 많이 돌아다녔다. 눈 위에 사는 곤충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톱토끼, 밀들이 같은 곤충이 살아 움직이는 겨울 숲은 죽어 있는 곳이 아니다. 겨울 숲에도 삶은 여전히 살아있다. 최근의 걱정은 우리나라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아열대화 되면서 겨울의 혹한이 주춤하다는 점이다. 굉장히 추운 날이 며칠씩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한겨울이 보다 온화해지면 생태계 균형이 깨져 버릴 수 있다. 열대지방도 문제다. 열대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계속되는데 그동안 그 주기가 상당히 예측 가능했다. 한데 지금은 리듬이 깨져서 변화의 양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전통적 절기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가. 그만큼 예측 가능했던 오랜 세월의 경험치가 흔들린다는 것. 지구가 굉장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겨울에도  
삶은 여전히 활발  
그 리듬 깨지는 게 문제  
:  
취업 어려운 사회도  
예측가능성 깬 기성세대 책임

❷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워진 생태계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끼는 감정은 정말 자괴감 수준이다.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에 비해 적어도 10배 이상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렇게들 열심히 하는데 졸업 후 몸담을 직장이 없으니 말이 되나.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국가가 경제적 팽창기에 있었고, 대체로 미래가 예측 가능했다.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20년 안에 우리가 아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회를, 누가 만들었나? 기성세대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여러 일을 해왔다. 앞으로 나의 과제, 아젠다는 바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 ❸ 과학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내가 공부한 학문이 그대로 삶으로 흘러 들어왔다. 스스로 생각해도 엄청나게 변했다. 어쩌다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어 이렇게 달라졌는지, 정말 고마울 정도다. 언젠가 고전연구를 하는 고미숙 박사가 말하기를, 옛날 양명학을 하던 학자들은 공부를 하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기쁨과 희열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댔다고 한다. 학문과 생활이 그만큼 가까이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학문과 생활이 그만큼 분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내게 ‘행복한 학자’라고 하더라. 군인 아버지의 아들 4형제 중 맏이로 엄청나게 고루한 집안에서 자랐다. 퇴근한 아버지 손으로 쓱 집안 먼지를 훑으시더니 세 시간 동안 어머니를 앉혀놓고 훈계를 하셨다.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고 자랐다. 우리들은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이야기인데, 대학 때 여자친구에게 ‘어디 여자가 먼저 전화를 거느냐고 타박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가정을 꾸린 뒤에도 비슷했다. 설거지만은 내가 하겠다’

고 공언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까운 시간이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나의 상황과, 별로 고마워 하지도 않는 것 같은 아내의 모습에 불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 늘 자연과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그들의 생활은 인간과 정반대가 아닌가. 동물 세계에서 살권은 늘 암컷에게 있다. 자연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 세상 관습에 의해서 살던 내가 점차 변해갔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됐고, 세상이 달라 보이니 개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이렇게 변한 나에 대해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한다.

### ❹ 세계적 학자이자 대중적 인기가 높은 명사가 되었는데, 인간 최재천에게도 ‘겨울’이 있었나?

전형적 문과 타입이라 어린 시절에 문인을 꿈꿨다. 그런데 고교 시절 서울대 진학자 수로 대표되는 학교 간 경쟁 탓에 강제로 이과 배정을 받게 됐다. 우리 학교가 전통적으로 문과가 약했기에, 이과반을 늘려 진학자 수를 늘리려는 교장 선생님의 전략이었다. 수학과 과학을 너무 못해서 고3 내내 수학 점수 30점을 넘겨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다. 성적이 괜찮아 아버지가 가라고 권유한 의예과에 지원했는데, 웬걸 낙방했다. 본고사에서 수학 0점을 받은 거다. 재수를 하기로 하고 봄부터 종로에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아침에 학원에 가방을 두고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며 놀았다. 밤에 가방을 가지러 학원에 가면 셔터가 내려져 있고 그 앞에 내가 가방이 놓여있었다. 어머니는 아픈 동생이 있어 내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아버지가 여전히 무섭기는 했지만 뭐, 나를 죽이시기 밖에 더하겠어? 식으로 막 가는 수준까지 간 거였다. 다방 DJ로 빠질 뻔 하기도 했고, 소편하우어에 빠져 세상을 등지는 식의 염세적 생각이 많았다. 그러다 겨울이 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 반짝 2-3달 공부를 했지만 원하던 의예과에는 또 떨어졌다. 삼수를 하겠다 마음먹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담임 선생님이 원서에 2지방 학과로 써넣은 동물학

자연과 동물에 대한  
‘행복한 공부’ 할수록  
삶에 대한 다른 관점 보여  
:  
호주제 폐지 주장 비릇  
‘학문의 생활화로 이어져

과에 붙었다. 지금이야 일년에도 여러 번 동물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나를 찾아오지만, 그때는 달랐다. 미팅에 나가서도 여학생들이 자기 집 취 이야기, 바퀴벌레 이야기만 실컷 하다 가버리기 일쑤. 공부고 뭐고 모든 게 싫었다. 대학생활을 정말 짜질하게 보냈다. 음악다방에 가서 앉아있고 또 어느 날은 교외선을 타고 벽제로 가서, 기차에서 훌쩍 뛰어들어 개울물에 발 담그고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냥 세상이 싫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다른 이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시절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시련이었고 긴 겨울이었다.

### ❺ 타당 포인트는 어떻게 왔나?

동물학과 4학년생은 실험실에 배정받게 되어있었는데, 어느 날 실험실로 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다. 유타대 조지 에드먼즈 교수로 하루살이 채집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었다. 서울대에서 영어 강의를 맡았던 한국계 미국인 교수께서 조수로 나를 추천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영어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던지라,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한 덕이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에드먼즈 교수를 따라 전국을 다녔다. 소핑도 관광도 없이 밤낮으로 개울물에서만 침범거리는 모습이 참 신기했다. 바로 내가 바라는 모습이었다. 자연 속에서 놀고 먹는 것(웃음). 정말 아무 것도 모르던 내가 왜 이런 걸 하시냐?라고 여러 번 묻자, 고개를 가우동하던 에드먼즈 교수가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뭔가를 쪽 적어 내려갔다. 생태학 분야 대가들의 이름과 소속 대학을 적어준 것이었다. 1번에 하버드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를 적으며 흠뻑 나를 보고 ‘여길 오라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순서로 써야 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하던 그때 그의 눈초리를 여전히 잊지 못한다(웃음). 그렇게 유학을 결심했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당시 내 평균 학점이 2.0을 밑돌았다. 4학년 때 48학점을 수강해서 몽땅 A학점을 받았다. 겨우 평점 3.0을 넘겨 유학을 떠났다.

● 그렇게 바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건지?

지금 돌아 보면 미국에서의 삶은 거의 '물 만난 고기' 같았다. 유학생들이 겪는 소소한 고생이 있었지만, 그걸 특별히 고생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내가 미국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공부를 소홀히 했던 데다, 부친이 퇴직금으로 마련해 주신 6달 생활비만 쥐고 건너갔기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바닥에 엎드려서 시작했으니 창피한 것도 없었다. 혼자 영어를 중알중알 연구실 미국인 동료의 억양이며 제스처까지 흉내 내며 걸어 다닐 정도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울까만 생각했다. 그렇게 1년 반 만에, 학교 측의 요청으로 막 유학 온 대학원생들에게 '영어 빨리 배우는 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됐다. 세상을 살아보니,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기도 상황이 달라지고, 그게 또 유리한 환경이 되고. 지금의 틀에 적응을 잘한 놈과 못한 놈이 있는 것뿐이지 잘난 놈과 못한 놈이 있는 게 아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 한다. 어떤 세



● 책이 벽을 뚫은 연구실에서의 모습(아래). 한때 학생들에게 '이거 유전자'를 읽지 않고는 자신의 강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많은 일반인들도 그 바람에 진화사회학을 종교로 갖게 한 장본인이자, 융합의 시대에 우리 사회에 '통섭(統攝)'이라는 단어를 선물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걸돌았던 학부 시절이나, 이래저래 어렵던 유학 초기에나 관심있는 과목에는 '몰빵'하듯 열심이었다. '지정된 논문을 통독 후 들어오라'는 관심 과목의 교수 주문을 순진하고 유일하게 이행하고, 수업 중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생긴 '행운' 한두개가 오늘을 있게 했다. 시중 장난꾸러기 소년같은 웃음을 보이며 인터뷰와 기법 촬영(위)을 했다.

수학 빵점의  
낙방-재수-대학 시절이  
내겐 '길고 짜질한 겨울'  
:  
한 두가지 자신있던 공부  
인연과 천직 맺어줘

대한민국 남자들의  
'밤무대' 만나  
:  
밤 9시~새벽 1시  
절간같은 침잠으로  
사색·독서·논문 활동해

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앞이 잘 안 보인다고 너무 널브러져 있지는 말자.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 보자. 나와 맞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뛰어라.

● 바쁜 와중에도 청년들을 자주 만나려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나?

고등학생들을 만나러 전국을 열심히 돌아다니다. 시간, 돈 상관없이 열심히 간다. 혹시 누군가는 내 강의를 듣고 새 인생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학생들을 만나면 이야기한다. 나는 아직도, 지금 이 현실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이 꿈이 꺾일까 무섭다고. 꿈에서 깨어나면 어디가에서 노숙을 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나는 교회는 나가되 신앙은 없는 사람이지만, 에드먼즈 교수를 만났던 것만큼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희망이라고는 없던 시절, 하늘이 내가 너무 딱하니가 에드먼즈 교수를 보내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하필 왜 그때 그 분이 한국에 들렀으며, 내 이름이든 꼭지를 들고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우연이자 행운이다. 심지어 나를 소개해준 그 한국계 미국인 교수와 에드먼즈 교수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두 분이 학회장에서 만났고, 한국에 간다는 에드먼즈 교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최재천이라는 학생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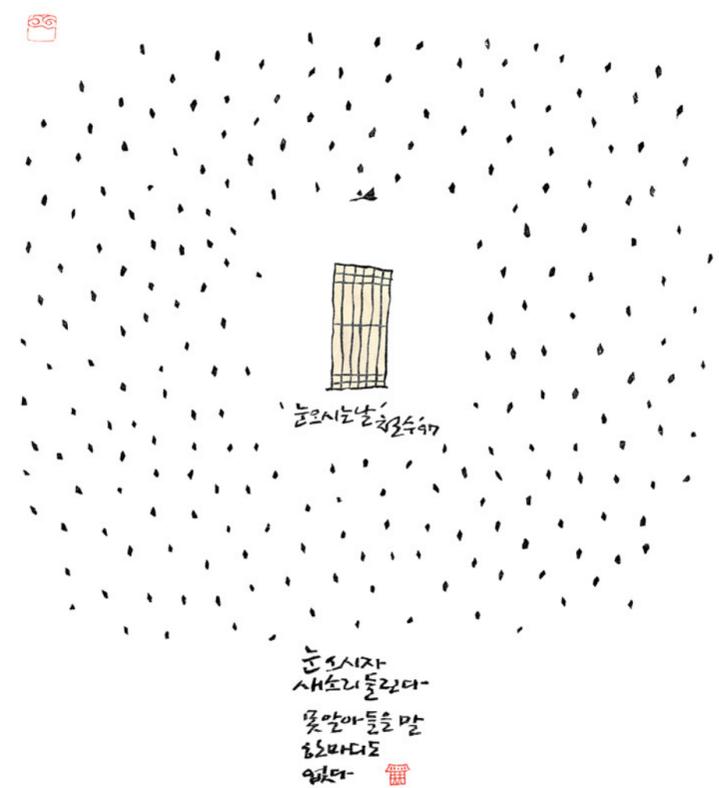
\ 소개한 것이었다. 그 때 그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떨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에게 지금 상황에 기죽지 말자. 나도 사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특별히 용감하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도 못할 게 없다는 거다.

● 학자 최재천에게 '침잠의 시간'이란?

나는 밤무대를 뛰지 않는 보기 드문 대한민국 남자다(웃음).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은 1년에 10번이 채 되지 않는다. 많은 중요한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오고 가고, 또 결정되고 하는 사회에서 불편한 삶의 방식이지만 꼭 그렇게 살아왔다.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지방 대학 교수로 부임해 아이를 돌보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생활인데 이제는 습관이 됐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온전히 내 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집이 절간같이 조용하다. 읽고 싶은 책을 보고, 생각을 정리한다. 논문을 읽고, 쓴다. 실험실이 아닌 자연 속에서 동물을 관찰해 연구를 해야 하는 사회생물학 분야에서는 논문을 많이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동안 논문을 꽤 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간 덕분이다. 내가 직접 쓰거나 감수한 책 80여권도 마찬가지다. 밤무대를 열심히 뛰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다. ●



● 최재천은?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이 그의 연구 대상이다. 미시간대학 교수를 지낸 뒤 한국으로 돌아와 모교 강단에 섰고,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초대 국립생태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생명다양성재단, 기후변화센터, 2030 에코포럼,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개미제국의 발견>,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열대야생>,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 하라>, <통섭의 식탁> 등 역서로 <제인구달의 생명 사랑 심계경>, <통섭> 등 다수가 있다.



© 이철수 www.mokpan.com



# 매서운 겨울 없으니 따가운 여름 있네요

- 섬에서의 침잠과 자유, 보길도에 살다



사학과 명예교수 **박옥걸**

보길도(甫吉島)는 남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전라남도 완도군에 속한다. 수원에서 해남까지 차로 4시간을 넘게 달려, 땅끝 선착장에서 30분여 배를 타고 노화도 산양진항에 닿은 뒤, 노화도를 가로 질러 보길대교를 건너면 밭을 수 있는 섬이 바로 보길도다. 해남군 땅끝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온화한 기후로 사시사철 초록빛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사방이 울창한 산지로 둘러 싸인 보길도에는 3000여 명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전복을 키우며 살아간다. 보길도는 조선 중기의 문인 윤선도(1587~1670)가 한 눈에 반해 시를 짓고 책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다는 곳이기도 하다. 이 섬에 박옥걸 아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살고 있다. <아주인사이트>가 박 교수의 보길도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정리\_이슬 / 브랜드전략실

● **보길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2010년 정년퇴직하고 2012년 봄에 보길도로 내려왔다. 일찍이 은퇴 후에는 이곳 보길도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혼 이후에는 쪽 오가던 곳이라 편안했다. 겨울에는 일이 많아 쉽지 않았지만, 여름방학이면 늘 보길도에 내려와 머물며 책을 읽고 논문도 쓰곤 했다. 처음 보길도에 와본 것은 1970년대 초, 월간지 <샌타>에서 일할 때였다. 직장 선배가 내게 자신의 아이들을 보길도 언니네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다. 여름휴가를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보길도로 향했다. 용산역에서 밤 기차를 타고 새벽에 목포역에 도착해,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보길도 앞바다에 도착했다. 선배의 언니 부부와, 그 자녀 5명이 사는 보길도 고택

감굴이 열리고, 야자수도 흔히 만날 수 있을 정도다. 특별한 월동 준비가 필요 없다. 반면 여름의 햇살은 무척이나 따갑다. 이곳에서의 일상은 단조롭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안을 돌아보며 앞뒤를 살펴보고 정비한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쓸다가 쓸다가,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 그냥 두고 있는 상태. 작은 나무들의 조경은 아내와 장모님이 하고, 바닥의 잔디가 내 담당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질한다. 이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깎으면 된다. 그렇게 지내며 손님이 오면 만나고, 책 볼 게 있으면 보고, 논문을 읽거나 공부도 하는데 요즘은 주로 컴퓨터로 자료를 접하게 된다. 주말에는 세 식구가 공소(公所)에 간다. 보길도와 노화도, 소안도의 천주교 신자들이 다니는 성당인데, 신부님은 상주하지 않고 선교사 한 분이 상주한다. 우리 식구 셋이 결석하면 그날 출석률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웃음).

● **도시의 삶에서 떨어져 섬에 사는데, 아쉽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섬에 살며 사색하고, 여유롭게 지내는 게 좋다. 마음이 편하다.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별다른 아쉬움도 없다. 가끔 강연 요청이 오기도 하는데 지역 활동을 포함한 외부 활동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서다. '침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다는, '자유를 얻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자유롭게 여행할 때나고 주말일 없이 지낸다. 다만 불편한 점은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번씩 다녀러 갈 때, 참 힘이 든다. 한번 움직이면 최소 여정이 사흘 정도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가 필요하다.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이곳 보길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정말 큰 일, 굉장한 경험이었다. 특히 기상 여건 탓에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으면 결항되는 일이 잦았다.

“섬으로 가야겠다”  
이른 작심이 내겐 침잠  
:  
섬으로의 은퇴...  
'침잠의 시간' 아닌  
'자유'의 시간

남쪽 섬의 사계절도  
나름 뚜렷  
어디나 '변화와 반복' 있는 섬  
:  
보길도의 '전복 풍요'가  
숲도 키우고, 새 길 나게 해

에서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맥 말팔과 선을 보라는 제안을 받아 만나게 됐다. 그렇게 가을 지나고 이듬해 봄에 결혼했다. 보길도에 갔을 때 초중고교 학생이었던 처남과 처제들은 나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더라. 정착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웃음).

● **지금 살고 계신 집, '김양재 고택'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보길도 북서쪽 정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800년대 중반 지어진 집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 김씨 후손인 처가의 어른들이 19세기 후반에 해남에서 보길도로 건너 온 뒤, 200년 가까이 후손들이 살아오고 있다. 이곳 사랑채에 사진이 걸려 있는 세 분의 어른이 보길도에서 교육, 산림 사업 등을 해오셨다. 제일 끝의 어른이 김양재(1923~1997), 장인이다. (편집자주 - 보길도의 명소로 학자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깔끔하고 정갈하다. 대문 옆으로 방이 있는 대문채를 시작으로 그 맞은편에는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다. 유리창으로 환하게 트인 사랑채의 대청마루 양쪽으로는 방이 나왔다. 대문채와 사랑채 사이의 소박한 정원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행랑채와 안채가 자리잡고 있다. 행랑채에는 창고와 욕실이 있고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안채 옆으로는 뒷동산으로 가는 계단이 이어진다. 지대가 높은 뒷동산에는 키 작은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고 감굴나무와 비파나무가 풍성하다. 사시사철 푸릇푸릇한 작은 텃밭과 노란 은행잎이 소복하게 깔린 잔디밭 위로 석탑 하나도 자리잡고 있다. 신라 말기, 고려 초기인 9~10세기 정교하고 시대에 만들어진 부도탑(스님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 **보길도의 겨울은 어떤지, 이곳의 일상이 궁금하다.**

한겨울에도 온화하다. 매서운 혹한이 없다. 기온이 10°C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

● **초겨울임에도 여전히 푸른 풍경뿐 아니라, 깨끗하게 정비된 보길도의 집과 도로 역시 인상적인데...**

최근 보길도는 아주 풍요로운 섬이 됐다.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전복 양식을 시작하면 서부터 섬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인근 바다 곳곳에서 전복을 키우고 있다. 전부가 전복밭인 셈이다. 도시로 나갔던 자식들이 섬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일을 돕는 집도 많아졌다. 예전 보길도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를 했고 일부는 산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다. 바로 옆 섬인 노화도에 평지가 많아 농사가 제법 되는 것과 달리 보길도는 산지가 많아 농토가 부족한 편이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던 거다. 예전에는 나무를 연료로 많이 썼기 때문인지, 섬에 지금처럼 나무가 뿅뿅하지도 않았다. 숲의 풍경은 불과 10년 전과도 꽤 차이가 날 정도다. 최근에는 정말 울창한 숲이 되었다. 길도 아주 좋아졌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주로 배편으로 움직였고 육로는 오솔길 수준이었다. 지금은 보길대교(2008년 완공)가 완공되어 차로 들어올 수 있고, 섬 안의 길도 정말 좋아졌다.

● **사계절의 자연 풍경과 감상을 담은 <어부사시사>를 쓴 고산 윤선도가 보길도에 여러 자취를 남겼는데...**

뛰어난 시인이었던 고산 윤선도가 보길도에 터를 잡게 된 덕에 섬의 곳곳이 품격 높은 이름을 갖게 됐다. 마을, 개울, 산의 이름을 윤선도가 직접 작명했다고 한다. 고산은 해남 윤씨 집안의 엄청난 재력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그 재력을 바탕으로 보길도에서 시를 쓰고 풍류를 즐겼으니 정말 원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다. 고산은 선 살 무렵 보길도에 들어와 1670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돌아가신 이후 해남으로 운구해 해남에 묻혔다고 한다. 고산은 연못을 파고 세연정(洗然亭)을 세워 글을 쓰고 활을 쓰는 등 여러 풍류를 즐겼는데, 연못 주변에는 소나무와 동백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많을 때 이곳

풍경이 특히 장관이다. '주변 풍경이 물에 씻은 것처럼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세연정이라는 정자 안에는 온돌까지 놓여있다. 고산은 섬의 가운데 분지 지역에 낙서재(樂書齋), 곡수당(曲水堂)을 짓고 머물렀다. 낙서재와 곡수당이 내려다보이는 산자락에 동천석실(洞天石室)을 지어 산중에서 풍류를 즐기기도 했는데, 이곳으로 도르래를 통해 식사를 올려 보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보길도가 윤선도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보길도 사람들에게 윤선도가 갖는 의미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 자신만의 천국을 이곳에 만들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들과 신분 차가 워낙 컸고 그 생활이 유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윤선도 사후에 고산의 흔적은 많이 허물어지고, 그가 만들었던 건축물도 대체로 손상된 상태로 남아있었는데 최근 20년 사이 복원이 되었다. (편집자주-고산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1636년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로 가다가 인조가 이미 청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배를 돌린다. 제주로 향



● 인터뷰가 아니라 고수의 큐레이터에게서나 나올 법한 보길도와 윤선도의 삶에 대한 잘 달여나온 차맛같은 해설의 호사를 누린 시간(위)이었다.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노학자로서의 진중함, 시려 깊음을 느끼게 하면서도, 물에 두고 온 아주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엔 격정적이다 싶은 애정의 조언을 주기도 했다. 하루의 주요 일과인 거주 고택에서의 산책 모습(아래). 완연한 겨울에 들어선 시간임에도 반도 끝에서 다시 현대의 배로도 30여분의 섬은 이제야 단풍들이 드문드문했고, 열대수가 심심찮게 석인 숲은 여전히 푸르렀다.

고산 윤선도  
(高山)  
중앙 무대 은퇴 후  
문학적, 예술적, 건축적 성취  
:  
'자신만의 천국'으로  
지역민 삶과 유리된 점 새겨봐

'전통의 강호' 대학들  
'후발 아주대의 눈부신 발전에  
"지나친 자신감" 눈총할 정도  
:  
순간순간의 시련들  
지나면 행운과 보람으로 남아

하던 중 보길도에 머물게 되었는데, 보길도에 마음을 빼앗겨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고산은 조선 제17대 왕 효종의 왕자 시절 스승이기도 하다)

● **아주대학교에 있는 후배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학교를 떠난 지 이미 오래 되어, 무어라 딱히 전할 말은 없다. 다만, 돌아보면 아주에서의 시간이나 개인으로서의 아주 행복한 시기였다. 1992년 아주대에 합류해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

에서 서로를 복돋아주며 힘을 모아 일했다. 전통의 강호라고 하는 다른 대학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자신감 아니냐?라는 은근한 눈총을 받을 정도로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다. 특히 인문대학 설립 초창기에 함께 학과를 꾸려가면서 참 열심히 일 했다. 그 당시, 순간순간에는 시련이 있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행운이었고 큰 보람을 느꼈다. ●



● **박옥걸은?** 고교 시절 문학을 좋아하는 인근 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문학에 관심이 깊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월간지 <샘터>에서 일했고 편집장을 지냈다. 이후 모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2년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고려 시대의 귀화인'이 그의 연구 분야다. 아주대에서 입학처장, 박물관장을 지냈다. 정년퇴임 후 보길도로 적을 옮겨 고택을 돌보며 지내고 있다.



" 선물 앞세워  
오시지는 마세요  
웃는 낫으로 오시면 좀 좋아요?  
사람끼리라 서로 반갑고 ... "



좋은 선물  
전수하



special  
겨울은 겨울이다

겨울은 햇빛이 가는 땅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겨울은 햇빛이 가는 땅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겨울은 햇빛이 가는 땅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특집 기고

# 쌀 한 톨의 무게

- 겨울의 빈 들판을 보며



약학과 교수 김홍표

땅뻐기가 좁은 땅에 태어난 탓에 진정한 지평선은 볼 수 없지만 내 어릴 적 우리 집에서 남북으로 10리에는 시야에 눈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후가 올 리던 고부의 두손산이, 오른쪽으로는 변산 의상봉이 멀리 보였다. 우리 집에서는 사방으로 10리 언저리가 최 는 두력이었다. 그렇기에 계절 변화는 나에게 곧 색의 더딘 변화였다. 푸르다가 누렇다가 텅 빈 들판을 지키는 벼 그루터기로 가을이 저물어 간다. 북서풍 따라 눈발이 날리는 겨울은 온 세상을 하얗게 수놓는다. 우리 집 마루에서 나는 의당 붉어야 할 가을의 단풍이나 봄꽃을 보지 못했다. 농촌을 지나는 네 계절은 내게 하염없이 바라보는 색상의 가나 긴 단조로움이었다. 아직 새마을 운동이 찾아오지 않은 초가집 처마에는 제비집 주인이 떠나고 없었다. 나는 그렇게 유년 시절 7년을 보냈다. 봄이 오면 아버지는 벼씨를 물에 집어넣었고 나는 거기에 손을 담갔다. 눈에 물을 대는 무자위가 나타나면 종달새가 하늘을 날고 아이랑이가 뛰어 올랐다. 모를 난 논은 아직 푸른빛이지만 논은 곧 짙은 푸름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쌀씨 자를 파자하면 팔십팔(八十八)이라고 한다. 한해 곡식을 얻기 위해 농사꾼의 손길이 여든 여덟 번 스며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증조할머니는 밥상머리에서 밥알을 남기지 말고 먹어라 밥알을 수채 구멍에 버리면 죄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쌀은 언제 인간 집단에 포섭되었을까? 화학적 자료와 유전자 분자시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쌀은 9000~1만 3500년 전 양자강 유역에서 최초로 인류의 손에 들어왔으며 거기서 인도, 동남아, 한국 및 중국으로 퍼져 나갔다. 곡물 경작을 예컨대 <중, 군, 쇠>의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간이라는 종이 나락으로 떨어지게된 최악의 선택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되었고 나중에는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계급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농경 이전의 구석기 사회를 유토피아나 선계(仙界)처럼 묘사하는 사람들은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 사회가 팍팍하다고 여기는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이상적일지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전 세계 인구 약 75억의 사람들이 먹여 치우는 곡물이, 자신을 살찌우는 슬픈 예측물로 전락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태양에서 도달하는 광자(photon)의 에너지를 차곡 차곡 쌓아 놓은 창고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쌀은 장차 벼포기로 자라날 배와 그것을 먹여 살릴 탄수화물 복합체인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벼는 자신의 유전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을 인간에게 위임한 채 살아간다. 밀도, 보리도, 소나 돼지도 마찬가지다. 동물의 사육과 식물의 재배는 이들 유전자 대물림을 인간이 책임진다는 생물학적 의미를 띤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전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재가 하늘로 차솟고 페루에서도 강도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각 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 움직임의 속도는 인간이 감각할 수 없게 느리지만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압박한 파국'으로 현현하기도 한다. 약 6500만 년 전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지던 즈음 우리 지구별에서는 서로 관련성이 거의 없을 듯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는 인도 지각 판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한 일이다. 아마도 지각 변동과 관련이 있었겠지만 이 당시 꽃을 피우는 일군의 식물 집단이 포도당을 그러모아 전분을 만드는 유전자를 발명해냈다. 지구가 건조해지고 숲이 사라지면서 태양 빛 직사광선이 직접 내리 쬐는 지역의 식물들은 증산 과정을 통해 사라지는 물을 지키려 인간힘을 쓰고 있었다. 탄소를 고정하기 위한 주 재료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어

곡물...  
생존의 고군분투 쌓인 창고이자  
자본 살찌우는  
슬픈 예측물이기도

물, 이산화탄소 등 영양소에  
태양빛 꼭꼭 여며넣는  
늪은 농부의 땀 새겨본다

둔 기공(stroma)으로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었다. 이산화탄소를 강하게 붙잡아 다른 방에 가두는 방식으로 식물은 기공을 열어 두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물들은 나중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졌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지구에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그때가 700만 년 전이다.

생물학적 속사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획하는 C4식물이 등장하면서 지구에는 최초로 초지가 등장했고 풀을 뜯어 먹는 초식동물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모두 다 지구상에 초본 식물이 나타난 까닭에 생긴 지평의 변화이다. 적도 지방을 벗어나 온대 지방에 정착한 상당수의 초본 식물은 1년살이를 택했다. 바나나처럼 여러 해를 사는 초본 식물도 있지만 내년을 살기 위해 일년생 초본 식물은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겨 두어야 한다. 씨를 많이 퍼뜨리는 것이다. 배와 배를 둘러싼 배젖 속의 전분을 많이 생산하는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인간 집단은 약 1만 년 전의 황금 초송달 지대에서 밀과 보리를, 양자강 유역에서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보다 많은 열매가 열리지만 익은 채로도 땅바닥에 열매를 떨구지 않는 특성을 지닌 곡물을 선택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분의 수확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인간의 이런 노력을 가상하여 '여거 신석기 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 이름을 붙였다. 손가락보다 짧고 먹질 것도 없는 옥수수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크기로 자라났고 벼는 왜소해졌지만 낱알만은 무겁게 달고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한 해 살이 식물이 씨를 만들어 내년을 기억하는 동안 여러 해를 살아가는 나무들은 키를 키우고 바람에 버틸 수 있게 뿌리와 줄기를 튼튼히 매만진다. 그러기 위해 열매를 맺지 않거나 심지어 꽃 피우기를 여러 해 멈추기도 한다. 여름을 채우던 온대 지방의 대부분 열목재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점은 일년생이나 다년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만 내년 열목재 공장의 건설을 향해 이들은 겨울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 이듬해에 봄꽃을 피우기 위해 일정 시간 차가운 기온을 감내해야 하는 식물도 드물지 않다. 일보다 꽃 먼저 피우는 식물들이 그런 친구들이다. 식물에게도 겨울은 바쁜 계절이다.

어쨌든 여름날의 햇볕을 저장한 식물과 곡물 덕분에 우리는 이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곡물인 쌀에 대해 숫자를 빌어 조금만 더 살펴보자. 쌀 한 톨의 무게는 평균 0.02그램이다. 한 숟가락에 쌀알 200여개가 들어간다니 약 4그램이다. 쌀알로 약 90그램 정도인 밥 한 공기에는 쌀알이 4000개가 넘는다. 이걸로 밥을 하면 무게가 늘어 200그램이 조금 더 된다. 이는 300킬로칼로리의 열량에 해당한다. 3킬로의 물을 100℃로 끓일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인간의 세포를 새롭게 정비하는데 사용된다. 요새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면서 밥 남기기를 예사로 하지만 한 세대 전만해도 어른들은 한 톨의 쌀에 농부의 땀이 7근이 들어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저 말을 실감하는 거의 마지막 세대에 속한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슬 내린 새벽 눈에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밥이 하늘이라고 말한 사람이 어디 시인들뿐이라. 하지만 나는 저 '하늘'이 태양에서 먼 길을 달려온 광자라고 해도 그 의미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쌀이나 밀 혹은 보리에는 하늘의 무게가 실려 있다. 겨울 빈 들판의 벼 그루터기를 보면서 나는 대지가 제공하는 물에 질소와 인 등의 필수 영양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에 태양의 빛을 고이고이 여며 넣는 늪은 농사꾼의 땀을 생각한다. 그 한 톨의 쌀알에 담긴 하늘의 무게가 너무 가볍지 않기를. 오늘도 나는 소망한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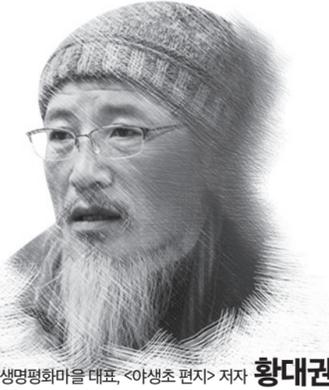
special  
겨울은 겨울이다

겨울은 햇빛이 가는 땅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겨울은 햇빛이 가는 땅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겨울은 햇빛이 가는 땅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특집 기고

# 어쩌다 사람이 혜방꾼이 되었는고?

- 겨울 산책에서 보는 '사무림'



생명평화마을 대표, <야생초 편지> 저자 황대권

햇빛이 쨍 하고 비치는 겨울 오후엔 따뜻한 난로 곁에 앉아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단단히 차려입고 겨울 들판을 쓰다니는 것도 좋다. 겨울 들판은 우선 조용해서 좋다. 모든 생명활동이 잠시 쉬는 기간이라 텅 빈 들판이 더 조용해진다. 덕분에 바람 소리가 빛어내는 멋진 자연의 교향곡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바람은 혼자서 소리를 낼까? 물론 공기 중에 바람끼리 부딪쳐 내는 소리로 있지만 지상의 나무와 풀줄기에 부딪쳐내는 소리가 더 많다. 잎을 떨구고 나면 아무 것도 못할 줄 알았던 나무와 풀이 겨울엔 이렇게 멋진 악기가 되어 숨죽이며 활동을 하는 못 존재들을 위로한다.

들판을 걷다가 바람의 교향곡 소리에 지치면 고개를 낮추어 흑한 겨울을 나는 식물들의 당당한 몸짓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들판을 뒤덮고 있는 가장 많은 풀은 1년생 초본이다. 보통 봄에서 가을까지 6개월 정도 번성하다 겨울이 되면 수많은 씨앗을 남긴 채 뿌리까지 다 죽어버린다. 아마도 이들이 없었다면 지구생태계는 벌써 끝장났을 것이다. 일단 개체 수가 압도적이다. 이들은 햇빛은 산야를 초록둑개로 보호해주는, 말하자면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담당하는 생명들이다. 이들이 벌어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씨앗은 지상에 골똘여 사는 수많은 작은 동물과 새들의 기본 먹거리가 된다. 일군의 참새떼가 풀숲에 앉아 씨앗을 쪼다가 인기척에 놀라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데 마치 장터마당에 각설이 공연을 보러 모여든 아이들의 지저귐 같다. 애들은 멀리 도망가지도 않는다.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근처 다발성 관목의 나뭇가지 사이로 숨바꼭질하듯 정신 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인기척이 사라지면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풀은 여러해살이 초본이다. 1년생 초본처럼 개체는 많지 않지만 뿌리를 대지 깊숙이 박고 땅속 안쪽의 미세랄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지상에 펼쳐놓는다. 이들은 뿌리가 살아있어 겨울에도 어떡하던 최소한의 이파리를 유지하려 애쓴다. '봄동'이라고 해서 겨울과 초봄에 맛있게 먹는 배추가 그런 농물이다. 흑흑한 겨울을 이겨냈기에 독특한 풍미가 생겨난다. 봄동을 보면 대부분 이파리가 납작하게 누워 있다. 겨울을 나는 거의 모든 초본들은 로제트라고 해서 이파리를 땅바닥에 바짝 붙이고 있다. 차가운 대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로제트 형태로 겨울을 나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뛰어난 풍미를 지닌 샐러드 식품이 된다. 여러해살이 풀들이 군락을 이룬 곳은 마치 땅바닥에 원형무늬를 겹겹이 새겨 넣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다. 그리고 이 납작한 풀들은 낮과 밤의 기온차이에 대응하느라 이파리 색깔이 참으로 요묘하다. 가장자리는 대개 짙은 고동색이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붉은색에서 초록색을 거쳐 노랑과 흰색으로 변한다. 색깔로만 보아도 생명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흙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흙은 모든 색깔을 흙색으로 통일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흙은 그렇게 모든 색깔들을 흡수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색깔을 되찾아 준다.

낙엽이던 어머니 대지로 회귀하는 위대한 자연 순환의 일부이다. 때가 되면 아무리 무성했던 식물들도 가차 없이 잎을 떨군다. 그 옛날 내가 얼마나 찬란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따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무상히, 그저 무상하게 특하고 대지로 떨어진다. 이게 삶이다. 기억에 연연하여 현재를 괴롭게 살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식물에 기억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식물도 인간처럼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식물은 인간처럼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자신을 온전히 자연에 맡김으로써 훗날을 도모할 뿐이다. 동양의 많은 고승들이 식물의 이러한 무상함 또는 무심함을 닮아보

기억에 연연하며  
현재를 괴롭게 사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

얼마나 찬란했는지,  
사랑받았는지... 무상하게 특  
자연에서 느끼는 바 없다면  
삶 모르는 것

려고 애를 썼다. 이른바 '수행'이라는 엄격한 행위를 통해 밀도 끝도 없이 자라나는 자연의 식을 도려내고 또 도려내어 개 중에 제법 성공한 이는 도인 대접을 받고 했다.

흥미로운 것이 사람들은 장터의 거랑뱅이나 단수가 높은 정치인보다 무심해 보이는 도인을 더 좋아하고 존경한다. 왜일까?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도 있고 메시의 축구도 있다. 무언지 잘 모르지만 그러한 삶이 자연의 본성에 더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연의 높낮이를 떠나 인간의 마음속 어디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경향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학습되었다기보다 원래 그렇게 타고 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자연을 보면 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들은 잘났건 못났건, 크건 작건, 수명이 짧건 길건 예외 없이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마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제 삶의 일부인 것처럼. 겨울산책을 하면 그 모습이 사무치게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면 겨울은 죽음을 의미할까? 죽은 듯 보이는 풀과 나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흑흑한 기후조건에 의해 잠시 움츠릴 뿐 생명의 활동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 겨울에도 양자바른 곳에는 어김없이 푸른 풀들이 고개를 내민다. 언제든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맺고 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생의 종말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소로 흩어져 또 다른 생명의 탄생에 기여한다. 이 생명의 재탄생을 촉진하는 것이 햇빛과 바람과 물과 불이다.

햇빛과 바람과 물과 불이 있는 한 생명활동은 쉼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구라는 이 생명의 향연장에 인간이 나타남으로써 비상이 걸렸다. 처음엔 몇 생명들과 사이 좋게 잘 지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권력'이라는 걸 만들고부터는 모든 생명활동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권력은 원래 인간들 사이에서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모든 생산활동의 근원인 자연을 더 많이 끌어 쓰기 위해 권력이 권력을 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만다. 욕심 많고 악상빠른 인간들은 결국 권력의 힘으로 자기만을 위한 거대한 생존체제를 만들어내어 생명계를 교란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이상한 가스를 대기 중에 마구 배출하여 햇빛을 가리고, 골짜기와 강을 막아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산을 깎고 빌딩을 세워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자연에 없는 이상한 불(원자력)을 만들어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당연히 지구상의 생명활동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제는 종으로서 인간의 멸종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천지간의 생명활동은 여전히 왕성한데 어쩌하여 인간만이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 혜방꾼 노릇을 하고 있는개! 바람결에 잉잉대는 저 나뭇가지로부터,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저 민들레잎에서, 무심히 떨어지는 저 낙엽으로부터, 돌 밑에 졸졸 흐르는 작은 물줄기에서, 구름 사이로 숨바꼭질하는 저 태양으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없단 말인가? 하긴 말머리를 잡아당겨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법. 때가 되면 알아차려라겠지. 그래도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이 순간 내가 느낄 수 없는 한 가지를 위해 주변에 널브러진 낙엽과 잔가지를 그러모아 모닥불을 지핀다. 그러나 나는 모닥불의 매캐한 연기냄새를 너무나 좋아한다. 어쩌면 내가 시골에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듯 마음만 나케면 언제든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마른 썩대에서 뭉글뭉글 올라오는 연기 너머로 짧은 겨울 해가 뉘뉘워지고 있다. ❷

4년 전 필자는 14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다. 예전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만큼 한국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였다.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는 하지만 매일 매일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이 필자를 지치게 하였다. 정신 없이 살던 어느 날 필자는 너무 지친 마음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아 쉬고 싶다. 평소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지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공감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공감한다는 답글을 올렸다.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왜 우리 모두는 휴식을 원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것인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신없다가 아닐까? 게다가 한국 사회는 조용할 날이 없다. 특히 최근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까지.

필자는 우리가 왜 늘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비움과 여유로움에 대해 몇 자 적어 보려고 한다. 먼저 '비움'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비움'은 수용(acceptance)이다. 최근 '수용'은 심리학에서 주목 받는 용어로, 수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 심리학의 흐름은 변화와 문제 해결을 강조하던 과거의 심리학 관점과 매우 다르다. 즉 과거 심리학에서는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 ‘괴물’과의 줄다리기를 놓아버리자

-겨울엔 '일시정지'의 시간을



심리학과 교수 김은하

지 살펴보고 이를 수정 및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 반면에 최근에는 수정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되 개인이 수정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하고 대신 자신이 가치를 두는 곳에 에너지를 쓰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수용전념치료(ACT)에서 사용하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엄청나게 강하고 공격적인 괴물과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괴물을 이길 수 없다. 줄다리에 이기기 위해 줄을 당길수록, 괴물은 10배 이상의 힘을 주어 줄을 당긴다.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지면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괴물을 이기려고 노력하거나 자포자기하여 힘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즉 이기거나 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바로 줄을 버리고 자신이 정말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서 괴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울감, 걱정, 무기력감,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소심함, 예민함, 유유부단함과 같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 ACT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자신의 기분이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노력이 과하면 엄청난 낭비가 될 수 있다. 나 자신을 수용하는 것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일종의 비움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를 수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일시정지'이다. '일시정지'는 게임, SNS, 온라인 서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정지'란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정지를 선언하고 내가 그동안 괴물과 싸우기 위해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시정지'이며 '비움'이나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르겠다. 사실 필자도 실제 얼마나 '일시정지'와 '비움'을 실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시정지'와 '비움'에는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시정지'와 '비움'은 더 나아가고 달리기 위한 준비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활동이다. '일시정지'와 '비움'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마지막 달, 12월을 여유롭게 보내자. 가령 12월 한 달간, 일주일에 하루 네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반나절을 '일시정지'의 시간으로 정하자. 이 시간을 미리 예약해 두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 및 모임이 있다 해도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말자. 이 시간 동안 차를 마시든, 음악을 듣든, 사랑하는 사람 및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보내는가와 관련해 정답은 없다. 이 시간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하는 셈 치자.

● 아침 3분, 저녁 3분씩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대로 경험하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나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자신의 생각이나

## ‘일시 정지’ 정해 휴식하고 3분 침묵으로 나를 보며 타인에 대한 욕심 버리고 모든 소리 끄는 ‘정적의 시간’을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고 수용한다면 보다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 타인에 대한 나의 욕심을 버리자. 주위에 걱정되는 사람 혹은 좀 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 사람 대신이 되어 줄 수 없다. 잔소리를 하기 보다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도 버릴 수 있다.

● 정적의 시간을 계획하라. 바쁜 일상 속에서 나만의 정적인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한 순간이나마 모든 소음을 끄고 정적의 시간을 갖는다면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당연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시정지', '비움', '수용'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과도하게 혼자만의 시간이나 정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은 때때로 우울함이나 불안을 초래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우리의 뇌와 몸은 언제 '일시정지'가 필요한지 알려준다. '일시정지'가 필요하다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 비움의 시간을 가져 보길 바라본다. ●



© 이철수 www.mokpan.com



나의 '겨울'이 된 이 한 권, 그 한 편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행동하게 한 '위로 한 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누구나 '겨울'의 고통 겪지만 시간은 "사랑 다하라" 하더라

<나의 삼촌 브루스리 1, 2>

빠른 전개, 직설적 묘사의 '삶이란 그저 사는 것' 그저 사는 것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정해진 문화콘텐츠학과 4학년



기욤 뽀샤 저, 밝은세상

작년 이맘때 나는 중국에서 겨울을 보냈다. 방학을 맞아 중국 친구, 한국 친구 할 것 없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기숙사에 혼자 남은 지 2주가 되던 날, 한국에서 온 택배 하나를 받았다. 내가 좋아하는 과자들과 기욤 뽀샤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라는 책 한 권이었다. 전화통 화할 때, '한글이라고는 한 글자도 못보고 중국어만 보고 있어 고통스럽다'는 내 농담을 기억 하고 친구가 보내준 깜짝 선물이었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한 노(老)의사가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어떤 노인 에게서 10알의 금빛 알약을 선물 받고 그 알약을 먹을 때마다 딱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이다. 과거로 돌아간 의사가 당시의 자신과 마주하며 벌어지는 장면 장면을 담고 있다. 주인공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았는데, 그가 만난 과거의 젊은 의사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한다.

이 책을 마주한 당시 나는 걱정과 불안이 많았다. 방학을 맞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데다 남들보다 중국어 실력 향상은 더딘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 중국에 온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 은 아니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들었다. 한데 책을 읽고 나서, 중국에 서의 지금 이 순간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몇 주 째 들여박혀 있 던 기숙사를 박차고 나가 당장 다음 주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패딩 점퍼를 벗어 던지고 따뜻한 날씨의 사면을 비롯한 남쪽 도시로 여행을 떠났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난, 말도 잘 안 통 하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도 하고 책 속 주인공처럼 해변에 앉아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한 순간 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한 해가 끝나가는 겨울이 되면 후회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지금 누군가 후회로 가득한 순간을 보내며 자책하고 있다면, 나처럼 이 책으로 따뜻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우경웅 미디어학과 4학년



저는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통해 시련을 극복할 힘을 얻었습니다. 2009년 겨울은 고등학교였던 제게 꽤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쳇바퀴 도는 다람쥐 같은 스스로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더 발전하지 못하고 현재 성적을 유지하는 데에 만 급급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지요. 시간을 돌려 다시 삶을 산다면 더 열심히 살아가겠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던 시절이 영화를 접했습니다.

영화는 죽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든 시계 장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남들과는 다른 생애주기를 가진 벤자민 버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영화를 꿰뚫는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는 '형태가 어찌되었건 시간은 절대 거꾸로 돌릴 수 없다'입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벤자민의 삶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습 만 반대일 뿐 그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갔고, 그 시간 속에서 평범한 남자의 삶을 살아 갑니다.

감독은 평범한 벤자민의 삶을 통해 영화의 두 번째 주제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들의 지탄을 받는 외모로 태어났지만 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고 또 살아가는 벤자민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힘들다고 생각해왔던 현실이 이에 비하면 얼마나 과반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영화 속 의 벤자민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위치에서 힘을 내 시련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시련을 맞이합니다. 특히나 겨울에 맞이하는 시련은 그 고통이 배가되 지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다른 이 영화를 보시고 저처럼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의 감정을 온전히 주고받는 무한대의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박보람 교수 수학과



천명관 저, 예담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와서 그냥 집에 있기로 한 그런 날에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커피나 케이크보다 봉지와자-펼쳐놓고 부담 없이 그리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하나 추천 하고자 한다. 이소룡의 시대를 산 세대가 아니기에 책의 소재목들이 이소룡이 출연했던 영화 제목임도 인지하지 못한 채, 우연히 집어 들고 아무런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던 소설 <나의 삼촌 브루스리>다. 미리 말하자면, 이 책은 함께 고민하면서 읽게 되는 책도, 삶의 큰 교훈을 던져주는 책도 아니다. 하지만 극적인 순간들이나 인물에 대한 묘사가 그저 재밌고, 때로는 연민을 느끼기도, 때로는 공감하기도 하며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소설은 줄곧 삼촌이라고 불리는, 이소룡을 신봉하는 한 남자의 인생(10대에서 50대까지)을 담고 있다. 삼촌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외도하여 뒤늦게 낳은 자식이라 소설 속의 '나'와는 고작 5살 차이이다. 10대의 삼촌은 말을 더듬고 어눌하며, 산속에서 혼자 이소룡의 무술을 연마한다.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동네 친구들에게 자신은 무도인이라 일반인과 싸울 수 없다고 더듬으며 말하는, 사실 현실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특이한 소년이다.

삼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액션센을 찍게 되고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운명의 여인, 여배우 원정을 알게 된다. 이후 액션 배우가 되고, 그러면서 (이소룡을 닮고 싶은) 삼촌의 이상이 실현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 삼촌교육대를 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삼촌의 인생 이야기는 답답하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억울하다. 감히 인생에 실패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패에 가까운 인생이다. 작가는 "산다는 것은 그저 순전히 사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소룡의 말을 인용하면서 소설 속 삼촌의 삶도 그저 한 인생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다. '소설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쓴 작가의 짧은 서문의 의미를,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소설에는 삼촌뿐 아니라, 80-90년대라는 시간 속의 여러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한다. 800여 페이지, 2권에 이르는 꽤 긴 분량이지만, 이야기의 전개가 빠르고 극적인 순간에 대한 묘사가 많아 지루할 틈이 없다. 어떤 부분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매우 직설적이고 날카로운데,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들었다.

<레미제라블>

공대생의 공부를 심화시킨 나의 '룩다운'



고재성 교수 기계공학과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석달간 미국 동부로 연수를 떠나기 전, 한 공연 DVD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학에 문외한인 공대생임에도 제목은 아주 익숙한 '레미제라블' 뮤지컬 25주년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음악, 출연자, 무대 모두 너무나도 훌륭하게 공연되어, 직접 관람을 하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도 그 감동이 전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작품을 본 후 장발장 역의 알비 보와 같은 세계적 뮤지컬 배우를 알게 되었고, 더불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 그리고 법과 사회적 모순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죠. 자베르가 평생을 법 집행의 신념으로 살다가 장발장에게 자비를 얻어 목숨을 구했을 때, 다시금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게 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은 그 모든 고민을 함축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고, 그때침 영화화된 레미제라블이 휴 잭맨과 앤 해서웨이 주연으로 개봉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영화관을 찾았는데 역시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석달 동안 제 휴대폰 플레이리스트는 항상 레미제라블 뮤지컬 OST로 채워졌고, 덕분에 하루 종일 '룩 다운' 하며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눈파는 시간의 힘>

'한 눈 파는' 겨울의 시간을...



김민영 저, 카시오피아

조재현 과장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대부분의 조직은 구성원이 조직에 오랫동안 머물며 하는 팔지 않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일터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우물이 깊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 구성원들은 일하고 싶은 것이지 일을 오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사고방식을 통해 그동안 겪은 것과 유사한 상황과 문제들은 빠르게 해결해 나가지만,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과 같이 변화가 빠르고 복잡화, 다양화된 시대에는 한 우물만 파다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무작정 한 우물을 파다가는 바깥 세상에 둔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물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민첩하게 알아채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한 영역의 몰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다른 영역의 기능도 익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다양성(한 눈 파는 법)을 익히고 실천해 가다 보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어 스스로 만족감과 행복함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보다, 명확히 정해진 목표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움직이는 씨는  
서늘한 틈까지 못하는 법  
-고요히  
앉으라!

'농사경어 - 수리!'  
권승 2004

© 이철수 www.mokpan.com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사실 아직도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다. 28년동안 큰 변화 없이 하루하루 비슷한 날들이었기 때문일까? 일주일 전쯤에 내가 부임할 때부터 쪽 지도교수로 있는 심리학과 소학회 [사람과 사회], 그리고 [법인] 학술제의 축사를 쓰면서 이별을 고하고 나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글을 쓰고 나면 조금 더 현실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생각해보면 아주대는 내게 고마운 곳이다. 학생들에게도 항상 아주대는 알찬 곳이니 학생들을 위한 여러 좋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곤 한다. 아주대에서 능력과 재주가 있으면서 “착한” 학생들을 만났고, 그들로 인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실상 교수 초기에 학생들이 내 강의가 어렵고 해야 할 과제도 많아 부담이 된다고 할 때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하면서 은근히 학생들을 원망했다. 그러다가 언제인가 강릉대 교수가 각고의 노력을 하여 학부 학생들과 함께 영어 논문을 읽고 실험을 함께 하며 해외 유명 학술지에 학생들 이름으로 논문을 출판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아차 싶었다. 내가 학생들을 위해 더 시간을 들여 애 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면서 학생들만 나무라는 꼴이었다는 걸 깨닫고 반성했다. 실상 항상 생각하는 바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남들이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즉, 대학의 명성보다) 훨씬 더 실력도 있고 재주도 있다. 다만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덜 믿고 이를 위해 덜 도전하며 덜 뛰고자 하여 지나치게 “암전”하다. 내가 좀 시달리고 힘들더라도 학생들이 좀더 뛰는 질문을 하고 기존의 것들을 의심하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교실 풍경을 보고 싶다. 또한 학생들이 좀더 진보적이거나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보수적이고 또 취업 등 학생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이라 실용적인 과목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사회문제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해결책을 제시해보는 과목들을 외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 시절이야말로 사회의 기본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소수집단을 위한 사회정의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또 이렇게 형성된 가치나 기본 태도가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강의에서 보람 있었던 일중 하나는 전공강의인 <사회심리학>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팀을 이루어 사회심리학 실험을 실습하도록 하는 과제를 올해까지도 지속해 오고 있는 점이다. 실상 학부 학생들이 강의 시간의 과제로 직접 실험 아이디어를 내고 주제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팀을 짜고 실험을 해서 결과분석을 한 후 보고서를 써 내어 발표까지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일일이 지도해야 하는 내게도 힘든 일이다. 실상 어느 대학에서도 이 사회심리 실험을 강의 시간에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한 때는 이 실험 과제를 없애 버릴까 고민도 했다. 그래도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 실험의 여러 문제를 철저히 토론과 협동을 통해 해결해 내고 전문가(교수)에게 문의를 도와줄 줄을 알아내며 보고서도 깔끔하게 써내는 경우들이 있어 흐뭇해 했던 적이 꽤 있다. 올해는 유난히 학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 등 적극성과 주도성을 보여 몸은 힘들지만 그동안 이 과제를 지켜온 것에,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 교수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일중의 하나는 내가 박사 논문부터 죽 관심을 가져 왔던 “고정관념과 편견의 문제”에 관한 연구들을 동료 교수,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 올 수 있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 실정-즉 한 학과에 한 전

공 교수가 1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에서 그간 일관되게 이 연구 분야만 연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내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 분야가 워낙 역동적으로 변화와 확장을 거듭해 왔고, 전통적으로 사회심리학의 핵심 연구분야의 하나였으며 또한 상당히 폭넓은 연구 주제와 사회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의미도 있고 무척 흥미롭기도 한 주제로 여겨졌다. 이 연구들을 하면서 운 좋게도 연구비를 딸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기초학문 연구비를 받아 다문화 편견의 심리와 이주민들의 정체성 관련 연구들을 하느라 대학원 학생들이 외부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만나 실험을 하는 등, 어려운 연구들을 수행하여 덕분에 상당히 양질의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기억들이 보람되게 떠오른다. 그러나 아쉬웠던 부분은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 편견의 감소에 있는데, 능력 부족으로 이론적이고 과정에 관심을 두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여, 편견 감소를 위한 보다 직접적 연구나 관련 정책-교육정책이나 평등고용정책-에 대한 개입 연구를 그다지 많이 수행하지 못했던 점이다. 또한 그에 따라 학술활동 위주로 주로 활동했고,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고용정책 등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을 그다지 하지 못해 공허하게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다.

생각해 보면 아주대에서 큰 어려움이나 굴곡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강의를 빠진 기억도 없으며, 물론 약간의 슬럼프를 겪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는 아마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수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덕분이었던 것 같다. 강의나 연구 외에 아주대 생활에서 잘한 일이 있다면 동료 교수들과 함께 (비상)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 내 민주화를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었던 일이다.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지만 소신대로 행동했고 후회는 없다. 덕분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함께 비판하고 고민하며 정권의 만행이 있을 때마다 함께 서명을 하며 생각을 같이 했던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고마웠다. 특히 사회대 구성원들이 다양하여 이전까지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일색이었던 인간관계망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 성숙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또 이일영 교수협의회 회장님을 모시고 총무를 하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발의한 사학법 개정의 일환으로 ‘대학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었던 점이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마지막으로 폭넓고도 막강한 지식과 기억력을 자랑하는 사회대 능력자 교수님들과 함께 산보 겸 점심을 먹으면서 알쏭실쏭 부럽지 않게 교양(?)을 쌓을 수 있었던 일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학교 여교수님들과의 크고 작은 사적 모임에서 서로의 고충이나 사는 얘기 등을 조곤조곤 나누었던 것도 즐거운 일 중 하나였다.

이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주대를 떠나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공적인 일들에 묻혀 살아 왔던 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의 삶,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안도해 본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좀더 느리게 그리고 좀더 평화롭게, 아울러 좀더 주변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동적’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 고 싶다. ●

## - 이 겨울, 아주의 울타리를 떠나며 1 “사회 의식과 정의감은 젊음의 힘이에요”



김혜숙 심리학과 교수  
재직 1990. 3.~2018. 2.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참새는  
높이 날지 않는다  
날살이나 살피  
배를 채울 뿐.  
멀리 굶어볼 일이  
없기 때문이지  
참새처럼 사는  
인생들이  
가장 많은 보

‘참새’  
할수  
2017

© 이원수 www.mokpan.com

- 이 겨울, 아주의 울타리를 떠나며 2

# “業”에 대한 의식 높이고 선곡은 도약을



**신동우** 건축학과 교수  
재직 1989. 8.~2018. 2.

1989년 3월, 봄의 기운이 완연한 아름다운 아주대 교정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9월 학기 교수 임용을 한 학기 앞두고 건축학과의 요청에 의해 출강을 했던 것인데, 그로부터 어느덧 29년의 세월이 흘러 버렸다. 그 즈음 한 선배께서 아주대학교에 부임한다는 내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아주 좋은 대학에 가서 '아주 좋은' 교육과 '아주 좋은' 연구를 해서 '아주 좋은' 학생들을 기르고 '아주 좋은' 교수가 되라는 덕담을 글로 써 주신 기억도 생생하다.

그러나 이제와 보니 세월이 정말 너무나도 빨리 지나 가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치 10년 정도는 도둑 맞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되돌아 보면 아주대에서 나의 29년은 평균 수 14년, 본부에서의 보직 5년, 그리고 그 이후 10년의 평균 수 기간으로 나누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재임하신 총장은 8분이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 하면서도 손에 잡힐 만큼 두드러지게 이룬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1989년 부임 당시 건축학과는 신생 학과로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특히 동관과 서관 뒤에 토목실험동을 건립하고 건축학과도 함께 입주해 발달관 준공 시까지 사용했던 기억이 가장 새롭다. 당시 원천관 공간 확보가 어려워 난방 조차 없는 가건물 수준의 토목실험동에서 학생들과 함께 석유 난로에 의존해 겨울을 나며 심야까지 동고동락하던 시절을 기억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대화나 개인적인 지도는 더욱 깊이가 있었다고 기억되며, 그 인연으로 80년대와 90년대 초반 학번 학생들과 요즈음 형님·동생처럼 지내게 될 줄은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이후 선배교수들과 함께 신생 건축학과가 학생들 선호도나 시설 면에서 공과대학의 기존 대과(大科)에 뒤지지 않는, 주요 학과로서의 기반을 닦았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또 대우그룹의 후광에 힘 입어 매년 달라지는 아주대학교의 위상과 평판을 느끼고, 학생들의 아주대 입학 선호도가 드높았을 때 가나도 젊었고 꿈이 있어서 아주대 교수로서 가장 전성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해인가 정시모집 입시에서 지금의 명문 S대 공대 모 학과에 수석 합격한 학생의 부모가 건축학과장이었던 나를 찾아와 아주대 건축학과 합격 대기자 순위를 보고 합격의 가능성을 상담했던 기억도 난다.

그 후 본부에서의 보직 수행 5년은 교수로서의 대학 생활에 또 다른 전기가 되었다. 대학의 행정에 눈을 뜨는 첫 경험이었지만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은 마치 작은 정치권을 연상하게 하였다. 좋은 기억으로는 2003년 4월 개교 30주년 행사로 개최한 KBS 열린음악회를 통해 아주대를 전국에 홍보했던 일과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원천관 앞 인마상 분수대를 설치한 것으로 당시 대우그룹 해체 이후 침체되었던 학내 분위기를 띄우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코 편치 않은 5년의 보직 수행에서 공과과는 물론 공존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도와준 교직원들 덕분에 어려운 직책 5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흐뭇한 것도 이 기간에 학내의 많은 교직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장기간 보직 이후 평균수로서의 연구생활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진행 중이던 국가지원 연구과제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술과제가 5년 일정으로 계속 되었고, 그 이후 2단계로 7년 일정의 국가지원 과제를 아주대에 유치하게 되어 연구실을 복원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다만 최근 국가경제의 정체와 함께 건설 경기의 어려움으로 건축학과 학생들이 진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대해 학과 교수로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함께 책임도 느낀다.

2016년 겨울, 본부에서 요청이 와 1983년 준공한 중앙도서관의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장직을 수행하

게 되었다.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이 리모델링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1층 카페와 2층 스테디라운지 리모델링으로 축소되어 지난 10월 준공되었는데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 마지막 보람을 느끼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기획처와 총무처의 처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중앙도서관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주대에서 29년이라는 인생의 한 장을 마치며 감회와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 하시듯 아주대학교는 큰 잠재력을 가진 좋은 학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지난 29년은 아주대의 잠재력과 실제 발전과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느끼게 한 기간이었다.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이제 남아 계신 구성원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함께 경험한 바와 같이 대기업 후원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주제 넘게 한가지 더 말하자면 아무리 큰 잠재력을 가진 조직이라도 실제로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과 호응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임기에 따라 매번 바뀌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수와 직원들의 본업에 대한 의식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본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좋은 처우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처우가 좋은 학교가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취업 후 회사원으로서 처우가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줘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학교 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돌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생 만사가 새옹지마라고 흔히들 얘기한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함을 피할 수 없지만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못 바꾸고는 인생사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떠나는 사람이지만 학교가 재도약을 위한 침잠의 시간을 하루 빨리 끝내고 새로 취임하실 총장께서 중심이 되는 선 곡은 재도약의 행보를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❶

**교수님, 감사합니다. - 정년퇴임 교원**

**이건모** 환경안전공학과  
재직 1989. 3.~2018. 2.



**제해성** 건축학과  
재직 1987. 3.~2018. 2.



**김광운** 경영학과  
재직 1983. 9.~2018. 2.



**이주희** 경영학과  
재직 1982. 3.~2018. 2.



**김태승** 사학과  
재직 1995. 3.~2018. 2.



**이민규** 심리학과  
재직 1991. 8.~2018. 2.



❶ 2017학년도 2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교수 8분을 대표해 글을 보내주신 김혜숙·신동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입학하니 지나가면. 마치 적적해지면 솔솔키서 눈발 흩날리다. 눈발도 인기척에 놀라지 않고. 솔솔은 눈발 바야흐로 왔으니.....  
'너를 이길자들었어. 솔솔이 눈발살려봐'

© 이철수 www.mokpan.com

# 석규야, 아주대로 와라!

creative for great  
**GREATIVE**  
이름은 창의력이 만들어가는 것이(GREATIVITY)

과관학기제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도전학기제

Tri-semester  
유럽, 미국, 아시아 등  
1인 최대 3학기  
해외교과목 수강 파견

'AFTER YOU'  
배려의 가치로 크는  
환대시대 '에프터유'  
글로벌캠퍼스

Global  
Internship  
다양한 직종을  
세계의 현장에서  
글로벌인턴십

서울보다 가깝다.  
신촌역사 강변에서  
아주대역까지 30분!

좋아하는 공부를  
깊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나다운 답을 찾게 해주세요

친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뛰게 해주세요

진짜를 다지고 나면  
괴짜가 나오게 해주세요

과관학기제, 3인타시메스터 등  
'괴짜' 같은 진짜를 키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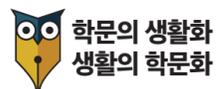
아주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세상의 모든 석규를 기다립니다.



**아주대학교**

김석규 군은 KBS의 '명견만리'에 출연, 학교 공부의 문제점과 청소년의 꿈에 대한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학을 바꾸는 대학' 아주대는 석규의 꿈을 응원합니다.





# 개인화의 고도화

- 디지털 변하기 교통시스템의 미래



최기주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즐겨 쓰는 편 같다. 영어식으로는 주로 ‘Digital Transformation’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튼 최근엔 변화가 내지는 전환기이다. 생활을 지탱하는 제반 요소나 기술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서다. 탈 것으로써의 자율 자동차, 스마트 하이웨이 및 운영 기술의 변화를 가져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은 교통 정책과 서비스 및 교통 공학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환기를 맞이한 현 교통 시스템에는 자전거 보행부터 자율 주행차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과거로부터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비전에 맞추어 교통대안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통 행위’는 경제행위의 일부로, 교통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에게 필요한 이동성(mobility)을 제공함은 물론 그러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도중에 생기는 혼잡, 안전,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한 대안을 만들고 평가하는 일이 교통시스템공학자가 주로 하는 일이다.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나 그것을 구성하는 제반 효용과 비효용의 요소는 달라질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라는 구성요소는 다시 차내 시간과 차외 시간으로 구별되며 통행비용 역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직접 비용과 사회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구별된다. 미래에는 이러한 시간 및 비용 요소를 줄여서 효용을 극대화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 저항에 대한 새로운 평가요소들이 생기고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주차의 용이성이나 주차 비용의 감소 그리고 편의성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차내 시간의 쾌적성과 더불어 차외 시간의 감소, 즉 환승에 걸리는 시간과 불편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있다. 차내의 시간은 모두에게 준 생산적인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면, 차내 시간의 처리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길 수 있다. 스마트폰 전원을 공급 한다든지, 쾌적한 차내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에 정부는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새로운 트렌드를 몇 가지 살펴보고 전체적인 교통 시스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정보화 및 지능화

정보 및 지능화로 인한 제반 결과는 사용자들의 선택폭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버스의 정류장 도착 시간을 몰랐고, 경로의 예상 통행 시간을 알 수 없었다. 한데 정보화로 사용자들은 교통 수단을 더 본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버스가 20분 후에 오니 나는 전철을 타고 가는 게 낫겠다’라든지, ‘막히는 경로 대신에 통행비용(toll)을 좀 내더라도 빠른 시간의 길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보화 추세는 기존 ITS의 고도화와 스마트 톨링, C-ITS 등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편의 및 안전 제고를 위한 방향의 정책을 펼쳐지게 할 것이다.

### 공유화

쏘카, 따릉이 등으로 대표되는 차량 자전거의 공유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젊은이들은 집과 차 등, 전통적으로는 소유의 개념이었던 대상을 공유하는데 익숙하다. 차량의 소유에서 마일리지 를 시려는 모빌리티 구매(owning vehicle to buying miles)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 등 공유로 인한 제반 피해(vandalism)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 부분은 결국 극복될 것이고 공유의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 플러스 앱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 각되었고 아직은 부정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 경제 주체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 또는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혁신과 조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리라 본다.

### 전기화 및 클린화

전기차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된 후 어느덧 7-8년이 지났으나 아직은 눈에 띄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충전 인프라의 부재 및 배터리 기술의 문제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많은 승용차 생산 라인이 전기차 라인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본다.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범 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에 올인하는 일부 국가들의 의지가 있고 특히 2016년 디젤차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화석 연료 기반의 차량 기술이 친환경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클린 디젤은 허상 일뿐이었다.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미래 기술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다.

###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종이로 된 승차권이 전자화 및 디지털화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더해 기존 컴퓨터화 운송 시스템(ITS)정보의 데이터, 자율주행으로부터 오는 데이터까지를 포함하는 소위 제반 정보의 디지털화가 핵심적인 변화다. 디지털화로 인한 데이터의 축적은 제반 교통 시장의 요구패턴 및 서비스 제고를 촉발시킬 것이다. 교통수단의 운영 및 서비스는 결국 모바 일이라는 환경으로 최종 집결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는 결국 최근의 통합 교통서비스 (Mobility as a Service, MaaS)와 같은 수요자를 위한 통행 서비스나 차량군(fleet)의 사전점검 및 최적 운영 서비스 계획 제고와 같은 공급자를 위한 서비스로 탄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보화와 공유화는 융합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통 수단의 소유가 아닌 필요 시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등의 트렌드는 디지털화로 인한 수요자의 기호와, 공급자의 전략을 합치 시키는 방향으로 교통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 무인화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이 무인전기버스 EZ10을 평균 25km의 시속으로 전기화, 무인화했으며 구글과 아마존, 우버는 무인 자동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버의 경우 운전기사 없는 자율주행택시로 일반인 상대 시범운행에 들어갔음은 물론 UberEats와 UberRush 등의 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물류산업의 경우도 기존의 무인화는 향후 도시별 무인수송네트워크 등과 결합하여 더욱더 고도화된 첨단물류로 변화할 것이다. 무인화는 기존의 시장구조와 경쟁하겠으나 소비자의 이용 편의, 출퇴근, 주거 결정, 여가 생활에서 필요한 교통의 요구를 반영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교통 시스템의 변화 양상은 결국 개인화가 고도화되는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 개개인의 취향이 교통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더욱 많이 반영되고, 또 교통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교통 체증이나 사고와 같은 비효용의 경험에서, 그리고 주차할 곳을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더불어 주 4.5일 근무제의 실현과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변화는 결국 여가시간의 확대도 이어질 것이다. 교통체계도 이런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자동차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패턴보다는 차량에 관련한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가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사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인프라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차외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차내 시간의 쾌적함과 편리함 제고를 더욱더 많이 요구할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버스와 같이 공유화 및 진보된 대중교통 서비스 하에서는 수단의 공유는 물론 공간의 공유라는 의미도 더욱 커진다. 시민의 성숙과 개인적 윤리의식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공학의 커리큘럼과 수업교재도 변화에 맞게 새로 쓰여야 할 것이다. 교통 시스템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무인 자동화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제반 노력으로써 교통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의 개발도 시급하다. ●

쏘카, 따릉이 등으로 젊은이들에게 차가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었다. 구글, 아마존, 우버는 무인 자동차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 이런 고도화적 변화는 학문과 정책에 ‘확실한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취업이 '전쟁'인 시대다. 많은 대학생들이 부지런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여러 스펙을 쌓아가며 구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과 '직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해 볼 기회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아주인사이트>는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좋은 회사'란 무엇이며 나에게 맞는 '업(業)'은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선배들의 여러 경험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모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유포에 몸 담고 있는 박지민 동문을 만났다.

● 회사 및 본인이 맡은 직무에 대해 소개해 달라.

2010년부터 모자 전문기업 유포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은 연구개발실 마케팅 파트에 몸담고 있다. 입사한 이후 4년 동안 유럽과 브라질 영업을 담당하다가 연구개발실 내에 신설된 마케팅 파트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해외 영업을 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잘 개발된 제품들에 대해 마케팅-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 회사를 자랑해 달라.

유포는 1974년 설립된 회사로, 인류 중에서도 액세서리로 분류되는 아이템인 '모자' 사업에만 올인해왔다. 지난 한 해 모자를 6000만개 이상 생산했고 매출액은 2500억원 수준이다.

유포는 세계 최초로 '늘어나는 모자'인 Flexfit을 개발해, 모자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한 회사다.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한국 제조 업체들이 많고, 이들을 벤더(vender)라고 부른다. 벤더들은 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OEM)을 따르고, 유포도 물론 이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유포는 더 나아가 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ODM)으로도 일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주문자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파악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트렌드를 파악해, 디자인을 고객사에 제안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내가 만든 제품'이라는 면에서 성취감을 크게 느낀다.

● 강소기업 vs 대기업, 이렇게 본다.

대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기에 직접 겪은 바를 말할 수는

Ajou Location Premium ⑥  
강소기업으로 가자!

“일에서의 행복이  
삶 전반의 행복”

‘세계 최초’의 카테고리 창조 기업



박지민  
경영 06

시스템, 보상, 복지 뛰어난  
중소기업 많아

눈 앞의 취업 이해하지만  
어떤 분야냐?  
오래 갈만 한가? 중시해야

빅데이터, 선배 적극 활용  
시행착오 줄이길

없다. 하지만 외부 활동을 하며 만난 대기업 종사자들을 통해 종합해 본 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시스템이 정교해짐을 알 수 있었다. 한데,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가 있다.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시스템이 부실하다면 '대기업' 이미지를 찾기 어렵다.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뿐 아니라 직원 인사와 복지 분야에도 해당된다. 규모와 관계 없이 회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면, 그리고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회사라면 충분히 좋은 회사의 면모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 대학 시절과 지금, 회사와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 어떻게 달라졌나?

취업이 간절하다 보니 '열정페이'를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쉬이 지치지 않도록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업무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서다. 어떤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적절히 힘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취업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다.

또, 회사에서의 생활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 안에서의 행복 지수가 내 삶 전반의 행복 지수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이 든다. 업무 능력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덜 말하고 많이 듣기, 인사 잘하고 표정 잘 관리 하기 등의 일상 요소요소가 행복 지수와 직결된다.

●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해보라. 잡플래닛이나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취업에 성공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아픔을 겪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더더욱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해 본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 빅데이터에 대해 선배의 끈끈한 진심까지 주고 받으면 더욱 좋다. 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좋은 선배를 만나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적극 도움을 구해보았으면 좋겠다. ●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니 부끄러움이 앞서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제 경험이 여러 분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수원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양승철이라고 합니다. 2001년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그 뒤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전문박사과정까지 밟고 있으니 벌써 학교와의 인연이 2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5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해왔는데, 이제까지는 고용 변호사 생활을 해왔으나 내년 초에 독립해서 법무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광고 스마트법조프리카 6층 법무법인 해담). 혹시라도 근처에 오실 일이 있거나 차 한 잔 생각하시면 방문해주세요. 언제든 지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캠퍼스를 참 좋아합니다. 대학교 면접을 보러 처음 학교에 방문했을 때, 크지도 작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소박하지도 않은 차분한 학교 캠퍼스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한참 동안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 시절 가장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는 학교 산책이었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걷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복잡한 생각도 정리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낭만과 불안이 공존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응원제, 벚꽃축제, 기숙사 페스티벌 등 행복한 추억도 많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꽤 힘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더욱더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법대에 진학했지만, 정작 법조인의 진입 장벽은 높아만 보였습니다. 제가 졸업을 할 때쯤 학교에 로스쿨이 생겼지만, 비싼 학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막상 입학하더라도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원서를 내고 회사 면접을 보기도 했는데,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꿈을 포기하고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제 자신이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였습니다. 우선 합격은 하고 학비 고민은 나중에 하자는 생각으로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학점은 좋았는데, 토익이나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해 아주대학교 로스쿨 입시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당시 예비 23번까지 합격을 했는데 제가 예비 29번이었습니다. 낙방의 고통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토익이나 LEET 점수가 오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몇 개월 간 학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초여름 오랜만에 학교



내 정신의 고향에서

꿈을  
달아가는 나를...

양승철  
법학 01 / 변호사

낭만과 불안 공존의 시절  
차분한 마음 주는 아주대 교정  
산책은 나의 중요한 일과

성호관 앞에서의 긴 눈물...  
로스쿨 차석 졸업의 나이끌어

“열심으로 목표 이루라”보다  
꿈과 달아가는 내 모습이길

를 찾았습니다. 교정을 혼자 걷다가 성호관 앞길을 지나가는데, 청문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수업용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중합관이 생기기 전 로스쿨은 성호관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성호관 앞길에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길을 오가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고, '나도 저 강의실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감정이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길로 다시 로스쿨 입시 준비를 했고, 다행히 토익 점수와 LEET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다음 해에 아주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공부에 힘들 때마다 성호관 앞에서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행히 성적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학비 부담 없이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차석으로 졸업하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영화 <재삼>의 주인공이고, 요즘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공익 변호사입니다. 덕분에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할머니 강도차사사건", "충주 귀농부부 사건" 을 맡아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공익 사건을 꾸준히 맡아주었습니다.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된 '군대 수은주사 사건'도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가정법률상담소나 아주대학교 리걸클리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익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 영리 활동과 공익 업무를 병행하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두 배는 바쁘고, 몇 배는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아주대학교와 교수님들의 도움이 있었던 덕분이고, 이를 보답하는 길은 제가 좀 더 나은 일을 하고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체력과 열정이 다할 때까지 공익사건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고민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겠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운 좋게 목표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늘 책상 속에 넣어 놓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가 한 말인데,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입니다. 열심히 꿈을 향해 노력하다보면 적어도 그 꿈과 비슷해진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인들이 각자의 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유럽, 남미 무대로 뛰다가 신설된 마케팅파트장이 된 박지민 동문(좌). 유포는 퓨마를 비롯한 전세계 600개 이상의 브랜드와 함께 하고 있다. 유포이 만든 모자를 쓰고 경기에 나선 세계적 스포츠 클럽 리카 파울러(우)의 모습.



# NEWS >>>

EVENT

## '아주-수원 석사 장학지원 프로그램' 장학금 수여식 열려



아주대 국제대학과 (제)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지난 10월25일 '아주-수원 석사과정 장학 지원 프로그램(ASSP)'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주-수원 석사과정 장학 지원 프로그램(ASSP)은 국제대학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함께하는 장학사업이다.

올 하반기에는 수원시의 자매도시인 멕시코 톨루카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시, 인도네시아 반둥시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자모라 루이스 엔리케(Zamora Luis Enrique), 렌키나 엘레나(Lenkina Elena), 이호산 모하마드 카이름(Hsan Mochmad Chairul)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아주-수원 석사과정 장학 지원 프로그램'은 수원시의 국제재·우호도시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학 사업이다. 수원시는 전세계 13개국의 16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AWARD & SELECTION

## 건축공학과 학생팀, <현대건설 기술대전> 은상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2017 현대건설 기술대전>에서 대학 부문 은상을 차지했다. 건축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의준, 김계현, 이수연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현대건설 기술대전>은 2008년 시작된 대회로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설 융복합 기술을 주제로 열렸다. 대회는 대학 부문과 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아주대 학생들은 대학 부문 은상을 차지, 연구개발 지원금 3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회는 1차 서류심사 - 2차 분야별 전문가 서류심사 - 최종발표 심사 3단계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9월21일 열렸다.

아주대 학생들은 '응용소음제거 기술을 이용한 미션러닝 기반 건설 소음 저감 시스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회에 참여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아이디어로, 수상 학생들은 올 1학기 아주대 과학학기제에 같은 주제로 참여, 특허 출원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VENT

## '제1회 사이버보안학과와 날' 행사 열려



사이버보안학과가 주최한 '제1회 사이버보안학과와 날' 행사가 11월10일 팔달관에서 열렸다. 전문가 특강과 간담회 등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사이버보안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모의해킹대회-미니 CTF로 시작했다. 팀을 이뤄 12개의 문제를 푸는 방식의 대회로 12명이 참가했다. 민서현(2학년) 학생이 1위를 차지했고 1학년 전민재 학생과 이재현 학생이 2위와 3위에 올랐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특강도 마련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의 양근원 총경이 <사이버수사 동향>을, 신종희 아마존 상무가 <AWS 기술 동향과 보안>을 주제로 특강을 내었다.

이후 학생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간담회도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윈스, 마크애니, 시큐브, 지니언스,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엠진서큐러스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NEWS >>>

EVENT

## 중국 우시市와 학부편입 프로그램 운영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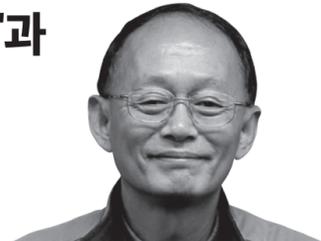
아주대가 중국 우시과학기술대학과 한국어 연수 후 학부편입으로 이어지는 '우시-아주 선구자프로그램(Wuxi-Aju Frontier, WAF)'을 추진한다. 지난 9월22일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 유희석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아주대 대표단은 중국 우시를 방문해 시 정부 관계자 및 우시과학기술대학 총장 등과 WAF를 운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WAF는 우시과학기술대학 재학생 20여명이 한국어 연수를 시작으로 학부와 석사과정까지 아주대에서 이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와 우시는 2014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꾸준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5년 우시 정부와 공동으로 우시 현지에서 아주대학교 입학설명회를 3회 개최했고, 2016년에는 우시 시장 인행이 아주대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을 방문해 ▲교원 박사과정 장학 프로그램 ▲한국어 연수 및 학부 편입생 유치 ▲병원 선진의료기술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VENT '할일을 할 뿐' 교직원 마이크

## '사소함 속에 깃든 위대함'과 24년

-정년퇴임 인터뷰



박물관 / 팀장 오상탁

오상탁 팀장은 1993년 아주대학교에 입사,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도구박물관과 아주역사전시실 개관을 주도했다. 교양강좌 <살아있는 박물관>을 맡아 학생들과도 호흡했다. 학예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과 경기도 문화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아주대학교 박물관은 경기도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학술지 <라기고고연구(科技考古研究)>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 25년 가까이 아주대학교에 재직하며 느낀 가장 큰 보람은?

2013년에 아주대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이해 종합관 1층 로비에 도구박물관과 아주역사전시실을 마련했다. 이 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도구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각종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목공도구, 생업도구, 인쇄도구, 규방도구, 대장간도구 등이다. 옛 도구들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시대를 살아온 이들의 숨결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당대 대로라하는 발명가들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담겨 있다.

아주역사전시실에는 동문과 교수, 직원들이 기증한 각종 학교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졸업장과 합격증, 학생증과 수업자료, 행사자료 등을 총망라한다. 아주대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초기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다. 소중한 옛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2003년에 개교 30주년을 맞이해 열었던 '아주 30년 역사자료 특별전'이었다. 당시 율곡관 1층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아주의 초창기를 함께 했던 교직원과 동문들이 많은 자료를 기증해주었다. 이 전시를 마련하지 않았다더라면, 과거 자료들이 고스란히 사라졌을 것 같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 ● 아주대학교 박물관이 '도구'에 집중한 이유는?

지금 박물관 전시실과 수장고에 보관중인 도구 유물이 1000여점 정도다. 1995년경부터 '도구'에 관심을 두고 수집을 시작했는데 한정된 예산 하에서 박물관을 다채롭게 운영해야 했기에 고고 유물 보다는 조선시대 이후의 유물, 특히 도구에 집중했다. 지금 우리가 소장한 유물 중 대부분이 구입한 것이고 일부는 기증을 받은 것이다. 또 보령 관창리와 평택 원정리 등의 유적 발굴 조사에 직접 참여해 발굴한 유물 중 일부를 국가를 대신해 보관하고 있다. 박물관은 다양한 종류의 소장품을 보유한 종합 박물관과 특정분야의 소장품을 갖고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 분류된다. 아주대 박물관은 '경기도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 ●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과 아주역사전시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는지?

지금은 전시 공간이 협소한데다 두 가지 종류의 전시가 한 공간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유물의 수가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쉽다. 앞으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해서 두 가지 전시 공간을 분리하고 더 많은 유물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한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들과 관련한

바람도 있다. 지금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이 국가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도 각종 기록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두고 시스템을 갖추어, 꾸준히 매년 생산, 보존, 보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 <살아있는 박물관> 강의로 학생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했는데,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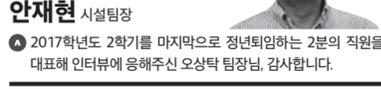
다산학부대학에서 개설한 <살아있는 박물관>을 2012년부터 매 학기 맡아 강의하며 보람이 컸다. 이 수업의 경우 절반은 강의실에서 박물관학에 대해 가르치고, 절반은 박물관 현장에서 진행한다. 7회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을 비롯한 서울과 수원 지역의 박물관에 학생들과 함께 간다. 전시해설을 듣고 토론도 나누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박물관이라는 곳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어릴 적 타로의 방문하게 되는 '지루한 견학 장소로 기억됐던 박물관에,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강의의 운영 방식에 대해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들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조언을 하고 싶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가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감사합니다! - 정년퇴임 직원

안재현 사설팀장  
▲ 2017학년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하는 2분의 직원을 대표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오상탁 팀장님, 감사합니다.



EVENT

## 일본정책연구센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일본정책연구센터(센터장 박성민)가 10월1일 다산관에서'저성장·고령화 시대의 한일경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양국이 협력관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는 아주대 박성민 센터장과 김중식 교수의 사회로 나카야마 재무성 주재관,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재지금융본부장, 현석 자본시장 연구위원, 이항희 교수, 장도환 기획재정부 통장조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새롭고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일 통화·소프트의 제계약 등 거시금융정책의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PEOPLE

## 대우장학재단 임원·대우장학 수여자, 간담회 열려



대우장학재단이 주최한 대우장학재단 임원들과 대우장학 수여자들의 간담회가 지난 10월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렸다. 대우장학재단은 미래 리더의 자질을 갖춘 장학 수여자들에게 대우학원 임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멘토링 형식으로 전수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추호석 대우학원·대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임원, 유희석 총장직무대행과 아주대 보직자 및 관계자, 그리고 20명의 장학생들이 자리했다. 대우장학재단은 1992년에 설립되어 약 2000명의 아주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대우장학'은 매 학기 각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1등을 한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추호석 이사장은 "대우장학 수여생들과 가진 첫 만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선배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전수되어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그룹으로 성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ATION

## 기부금 쾌척 하영화 명예교수·김정우 동문에 감사패



학생들을 위해 기부금을 쾌척한 하영화 수학과 명예교수와 김정우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하 명예교수와 김 동문은 각각 1000만원을 기부했다.

올 1학기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한 하영화 교수는 수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하 명예교수는 1987년 수학과에 합류해 30년간 학생 지도와 교과목 개발 등에 힘써 왔다.

김정우 동문(화학공학과 85, 이노벨택 대표)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열렸다. 김 동문은 전자공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김 동문은 전자공학과 반도체 공정 실험 실습 지원에 기부금을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우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에는 화학공학과 85학번 동기인 강민규, 강원규 동문이 함께 자리했다. 김정우 동문과 강민규, 강원규 동문을 비롯한 화학공학과 85학번 졸업생들은 앞으로 릴레이 기부를 통해 총 1억 원을 모교에 기탁하기로 했다.

AWARD & SELECTION

## 수학과 학생팀, 빅데이터 분석 <제5회 빅콘테스트> 수상



수학과 학생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한 <제5회 빅 콘테스트>에서 수상했다. 이 대회는 에비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다.

수학과 원민식, 주호세, 김용규, 맹주희 학생은 이 대회 퓨처스 리그에 참가해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센터장상을 수상했다. 이 콘테스트는 퓨처스 리그와 챌린지 리그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퓨처스 리그는 개발 영회의 관적 수를 예측하는 문제로 영화 매출액과 점유율, 관객 수 등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아주대 학생들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봉영화 누적관객 수 예측'으로 참가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학생들은 이 대회 참여 경험이 있는 원민식 학생의 주도로 각자 ▲실명번호 설정 및 모델검증 ▲관련 논문 조사 및 적용할 알고리즘 탐색 ▲관련 머신러닝 기법 조사 ▲데이터 전처리 ▲클로딩 및 데이터 가공 등을 나누어 맡아 팀워크를 발휘했다.

PEOPLE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보건의로 교류단 방문



아로센코 올렉 이르쿠츠크주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보건의로 교류단이 지난 10월25일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경기도의 우수 의료산업을 시찰하고 한국 의료보험 체계를 전수받기 위해 방문했으며, 아주대학 교병원 운영 체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유희석 총장직무대행 겸 의료원장은 "지난 6월 경기도 보건의로대표단과 이르쿠츠크주를 방문한 이후 한국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뜻깊다"며 "이번 방문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라며 향후 이르쿠츠크주의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jou Quarterly Magazine 2017 Winter Vol.22

알림

good bye, e-class

HELLO~ Ajou Bb

"수고했어~ 이클래스"

"잘 부탁해~ 아주 Bb"

2018년 1학기부터는 "아주Bb"만 운영됩니다~^^

보관에 필요한 개인자료, 이클래스 종료 전 백업해 두세요~!

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AJOU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초상책 읽는 즐거움- Book Club

